A NEW PARADIGM FOR SMALL GROUP MINISTRIES IN THE CHRISTAN KOREAN CHURCH :

CREATING RELATIONSHIP-ORIENTED SMALL GROUPS FOR IMPROVING INTERCONNECTEDNESS AND MUTUAL RESPECT

교회 소그룹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 :

상호 관계성과 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지향적 소그룹 만들기

A Dissertation

Presented to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o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Doctor of Ministry

by

Inhye Moon

May 2016

This dissertation completed by

Inhye Moon

has been presented to and accepted by
the faculty of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of the

DOCTOR OF MINISTRY

Faculty Committee

Samuel Lee, Ph. D.

Namsoon Kang, Ph. D.

Dean of the Faculty

Sheryl A. Kujawa-Holbrook

May 2016

ABSTRACT

A NEW PARADIGM FOR SMALL GROUP MINISTRIES IN THE CHRISTAN KOREAN CHURCH :

CREATING RELATIONSHIP-ORIENTED SMALL GROUPS FOR IMPROVING INTERCONNECTEDNESS AND MUTUAL RESPECT

by

Inhye Moon

The project evaluates to what extent members in small groups in a Korean church are satisfied with their relational experience and how they experience interconnectedness. The project analyzes the active small groups in a Korean church and examines the causes and the effects of the level of satisfaction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project offers a new paradigm through this process.

Eco- theology understands a small group as a living organism that is interconnected and coexist with nature and the universe. From the perspective of relational cultural theory, mutuality means exchanging and transferring personal feelings, thoughts, and emotions with others in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therefore means developing and transforming together with others. This perspective proposes that each member of a small group is not separable from others and is instead interconnected.

Based on this theoretical foundation, the researcher participated in a small group and filmed and observed the group with its agreement. The researcher also interviewed each member of the small group. Then, the interviews were categorized according to Colaizzi’s method.

From the results, the project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vitalization of relation-oriented small groups. First, when small groups are relation-oriented, mutuality produces and increases support and encouragement, receptive feedback, a sense of belonging, attachment, communication, sympathy, spiritual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self - reflection and insights, restoration to health, and change of personality. Second, important factors for the vitalization of relationships and interconnectedness include: small groups education and encouraging promotion of small groups for all members of the church, awareness of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of professional trainings for the relation-oriented small groups, persistent demand for shift in the pastor's paradigm, and a new theological practical paradigm based on eco-theology and relation cultural theory.

KEYWORDS: Small Group, Relationship, Interconnectedness, Eco-Theology, Mutuality

SUMMARY

The project aims to evaluate to what extent members in a Korean church small group are satisfied with their relational experience and how they experience interconnectedness. The project analyzes active small groups of a Korean church and examines the causes and the effects to the level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The project seeks a new paradigm through this process.

Chapter I recognizes a problem in the Korean church that Korean pastors appropriate small groups as a method for the quantitative development of their churches. The chapter argues that the essence of the small group is interconnectedness and relational orientation and defines small group and interconnected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eco-theology and relational cultural theory. The audiences are the Korean church and pastors. A qualitative method has been applied to gather data about the experiences of small group members in terms of interconnectedness and relationships. Chapter II examines theories of small groups and interconnectedness from the perspectives of eco-theology and relation cultural theory.

Chapter III introduces a research method for the relation-oriented small group in a church. The researcher filmed and observed the group with their agreement. The researcher also interviewed each member of the small group and gathered data from them. Then, the data was processed and categorized according to Colaizzi's method.

Chapter IV presents the data and interprets the findings. The process produced two categories, 10 clusters of themes, and 314 formulated meanings. The two categories are the characteristics of interconnectedness in the small group and the experience and effect of interconnectedness in the small group. The ten clusters of themes are a

significant and meaningful statement about their experiences and thoughts in the small group: “We all … didn’t know much about the district group,” “Do I need to do it with the people I do not know?,” “Appreciated, thankful, respectable, challenged…,” “Anyway it is fun to have a district group. We will …,” “Feel better and close,” “Feeling comfortable in my heart and dependent on each other,” “Taking care of each other like family, wish to share more and embrace them,” “We exchange many things and learn from each other, these make me feel good,” “I rely more on God and have stronger faith in God,” “I reflect on myself,” etc.

In Chapter V, the project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relation-oriented small group to teem with life: First, it is observed that when the small group is relation-oriented, mutuality produces and increases support and encouragement, receptive feedback, sense of belonging, attachment, communication, sympathy, spiritual transformation and development, self reflection and insights, restoration to health, and change of personality. Second, the important factors for the vitalization of the relationship and interconnectedness includes: small groups education and encouraging promotions for all members of church, awareness of the necessity and significance professional trainings for the relation-oriented small group, persistent demand for the shift of the pastor’ paradigm, and seeking a new theological practical paradigm based on eco-theology and relation cultural theory.

목차

TABLE OF CONTENTS

Chapter I

서론(Introduction)

A. 소그룹 목회 연구의 의미와 목적

한국 사회는 산업 정보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빠르게 요동치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전반적인 변화 현상은 전통적인 가치관과 행동 양식에도 큰 변화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인간관계에 있어서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인간관계 단절 등 인간 소외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Clyde Reid 는 급박하게 변화되어가는 대중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더욱 안정감과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관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2] 또한 이러한 관계들은 소그룹의 구조 안에서 쉽게 충족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현대 사회 소그룹의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다: "소그룹이 교육 현장에서 왜 그토록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가? 이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한 가지 이유는 현대 사회에 존재하는 깊은 굶주림 때문일 것이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람들은 깊은 인간관계에 목말라 한다."[3]

김영태 역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시대적 도전과 변화 위기에 대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소그룹 목회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4] 즉

---

[1]조성대, "현대사회와 인간관계의 위기," *한국 인간관계학보,* vol. 5, no.1 (2000), 125-28.

[2]Clyde Reid, *Groups Alive Church Alive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trans. 전요섭 (서울: 쿰판출판사, 1996), 15.

[3]Ibid.

[4]김영태, "전통적 교회의 현상적 도전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 vol. 5, no. 5 (2010), 42-44.

현대 대부분 교회의 특징은 양적 성장의 추구,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 건물 중심의 교회, 강의나 예배사역을 통한 교회 교육 구조를 지향하고 있고, 교인들은 대부분의 시간들을 각종 프로그램, 위원회 모임을 갖는데 사용한다는 점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러한 교회의 특징들은 교회의 본질에서 멀어져 버렸다는 것이다. 따라서 1990 년대 이후 한국 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구조적 모순을 극복하고 건강한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그 가운데 유행처럼 빠르게 퍼져나간 것이 바로 소위 '소그룹 목회'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사역 형태이다.[5] 특히 급격한 교인 감소라는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2000 년대 들어서면서, 교회들은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구역, 속회, 제자훈련, 귀납적 성경공부, 열린 예배, 강해설교를 비롯한 각종 소그룹 (셀목회, 알파코스, 윌로우 클릭교회 소그룹 이야기, 새들백 교회 소그룹 프로그램, 세렌티피티 소그룹, G12, 목장 등등) 사역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으며 목회자들은 소그룹에 관련된 세미나에 줄을 지어 참석하고 있는 현실이다.[6]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러한 노력의 배경에는 교회의 본질 추구보다는 자본주의와 결탁한 대형화, 물량화를 추구하는 교회의 성장지향주의가 도사리고 있다. 이에 대해 권오봉은 "오늘날 대부분 한국 교회 소그룹이 목회자의 성공 지상주의적 성장 전략에만 치우쳐 교회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지 않고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고 말한다.[7]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 구조적 문제와

---

[5]Ibid.

[6]권오봉, "소그룹 사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Th. M. thesis,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1),1.

[7]Ibid.

도전들에 대한 진지한 직면과 성찰 그리고 이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이론적 의식 변화를 위한 패러다임의 모색 없이 소그룹을 단지 목회자 중심의 교회 성장 위주의 방법론적 도구로만 전락시켰기 때문이다.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소그룹은 그 자체로 생명을 지니는 하나의 유기체이며, 이 생명 공동체는 자연과 더불어 온 우주 만물에 이르기까지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상생하며 서로 상호 연결된다.[8] 소그룹 안에서 그룹원들을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 이는 하나하나가 다 주체이며 한 몸으로 유기적 연결 관계에 있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공하며, 소그룹의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상호 관계성과 상호 존중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준다.

현재 한국 교회 교인들은 소그룹 안에서 얼마나 서로 간에 만족할 만한 관계 경험과 상호 관계성을 경험하고 있을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일까? 본 연구는 생태신학적 관점과 관계문화이론을 통해서 관계지향적 교회 소그룹에 대한 신학적 근거와 이론적 근거를 모색하고, 이를 토대로 교회 소그룹 안에서 과연 서로 간에 얼마나 만족할 만한 관계 경험과 상호 관계성을 경험하고 있는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상호 관계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추구하는 관계지향적인 교회 소그룹 활성화를 모색하고자 한다.

---

[8]심종혁, "토마스 베리의 생태신학 소고," *신학과 철학,* no. 7 (2005), 7.

B. 생태신학과 관계문화이론의 중요성

21세기에 들어오면서 한국사회는 일명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산업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점점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 사회는 현재 우리의 생활양식 전반에 침투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조성대는 "이러한 변화는 인간에 대한 이해, 인간관계, 공동체 형성, 인간의 능력과 태도와 행동양식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을 밝히고 있다.[9]

조성대는 정보화로 인한 현대사회는 인간관계의 변화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한다.[10] 첫째, "컴퓨터를 매개로 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정서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도가 낮다"는 것이다.[11]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상대방의 눈빛이나 표정, 몸짓이나 침묵 등 비언어적 메시지가 오히려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경우가 많은데 컴퓨터 상에서는 직접적인 만남을 통한 육체적 행동과 관계들이 배제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정서적 감정 교류 개입이나 유대감이 상대적으로 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인터넷의 사용이 증가할수록 현대사회는 서로간의 신뢰성이 약화되기 쉽다"는 것이다.[12] Computer Mediate Communication(CMC)상에서는 상대방 발언이 진실한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로간의 신뢰감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CMC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거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익명성에서 서로 관계가

[9]조성대, 111.
[10]Ibid., 125-28.
[11]Ibid., 126.
[12]Ibid., 127.

시작되기 때문에 좀처럼 깊은 신뢰감을 형성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셋째, "대면접촉의 약화로 갈등의 해소 혹은 대립의 해결이 결여되기 쉽다"는 것이다.[13] 가상 세계에서의 만남은 접속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자기와 의견이 대립되거나 뜻이 맞지 않으면 쉽게 접속을 끝냄으로써 자유로운 탈퇴가 가능하다. 이러한 CMC 상의 관계가 익숙해지게 되면 갈등이 생겼을 때 쉽게 피해 버리거나 단절하는 방식을 택하기 쉽다. 이러한 손쉬운 도피와 단절 현상은 구체적인 현실 상황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인내심이나 배려와 같은 인간적인 품성이나 원활한 의사소통의 기술과 방법, 인간관계 능력, 위기 대처 능력이나 갈등 해소 방법 등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간과해 버리게 되는 것이다. 넷째, "가상공간에서는 윤리의식이 약화되기 쉽다"는 것이다.[14] 최근 악플이나 사이버테러 등으로 우울증, 자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에 대하여 생태학적 여성주의자들은 생태학적 관점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진단한다.[15] 즉 그 근본적인 문제의 뿌리는 서구의 기계론적 세계관, 가부장적 위계 질서적 이원론, 군사주의, 극대 이윤과 욕망을 추구하는 자본주의 등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더욱이 안타까운 점은 서구의 기독교 역시 여기에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생태학자 Thomas Berry 는 지나왔던 역사의 발자취를 살펴볼 때, "서구의 기독교는 자연이 지니고 있는 경이로움과 신비함을 소멸시키고

---

[13]Ibid.

[14]Ibid., 128.

[15]정현경, "에코페미니스트 신학의 한국적 정착을 위하여," in *여성신학 학술 심포지엄: 여성·자연·생명:생태학적 여성 신학에 대한 신학적 평가,* ed.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서울, 1994), 2 .

자연을 단지 인간의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생각하는 근대사상과 맞물려 지금의 생태 위기와 더불어 인간 존재의 왜소성을 초래하는데 한 몫을 담당해왔다"고 지적한다.[16]

심종혁은 생태학자 Thomas Berry 의 사상을 토대로 서구 기독교가 생태 위기와 인간 존재의 왜소성을 초래하게 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17] 첫째로, 하나님 이해이다. "기독교는 신을 지나치게 초월적 존재로 인식함으로써 자연 안에 내재적으로 현존하는 신에 대한 감수성을 저하시켰다"는 것이다.[18] Berry 는 자연세계를 인간 존재의 모성적 원천으로 이해한다. 인간이 지니는 "snaps 적 감각", 즉 원천적인 종교심은 이러한 생태적이고 우주적인 실체의 경이로움과 신비로움 속에서 오게 되는데, 이러한 자연 세계가 단순히 기계적인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우리 자신의 존재도 왜소하게 되었다는 것이다.[19] 즉 서구 기독교가 하나님을 지극히 초월적인 하나님으로만 이해하면서 우리 존재의 모체가 되는 자연 세계와의 분리를 초래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모든 존재의 실재 안에 깊이 내재하고 있는 영적 에너지를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는 우리 인간의 종교적 심성, 감수성 등을 상실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20] 둘째로, '축소된 구원' 중심의 전통이다. 구원 중심의 전통이 창조 중심의 전통보다 강화되어 인간 구원에 지나칠 정도로 관심을 기울인 결과, 자연 세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1]

---

[16]심종혁, 5.
[17]Ibid.
[18]Ibid.
[19]Ibid., 4.
[20]Ibid.
[21]Ibid., 5.

Berry에 의하면 서양문명은 1347년 흑사병으로 인하여 전체 문명의 1/3이 죽음에 이르는 비극을 체험하면서 교회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되면서 구원의 의미가 축소되었다고 한다.[22] 즉 흑사병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악한 세상으로부터 도피, 분리되어야 하고 인간은 이러한 자연 세계로부터의 건짐(구원)의 요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23] 이러한 '축소된 의미의 구원론'은 우주가 하나님 활동의 장이라는 개념 상실을 가져오면서 결과적으로 자연 세계는 구원에 대한 이해에서 배제되기 시작하였고, 뿐만 아니라 자연 세계의 모든 것을 인간 중심으로 판단하고 도구화하려는 인간중심주의가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24] 셋째로, 계시 이해의 '편협화'이다.[25] 본래 자연 세계는 하나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계시의 원천이었지만, 기독교 계시 체험이 지나치게 성서 문자에 편중되면서 자연에 나타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소실되었고, 그 결과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로 자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26]

Berry는 오늘날 기독교 신학 역시 과거의 전통에 너무 집착하여 생명이라는 더 큰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고립되었다고 말한다.[27] 같은 맥락 안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

[22]이요한, "Thomas Berry의 우주론적 생태신학고찰"(Th. M. thesis, 수원 가톨릭 대학교 대학원, 2012), 92.

[23]Ibid.

[24]심종혁, 5.

[25]이요한, 99.

[26]심종혁, 5.

[27]Thomas Berry and Thomas Clarke, "Befriending the Earth," in *A Theology of Reconciliation Between Humans and the Earth*, eds. Stephen Dunn and Anne Lonergan (Mystic, Connecticut: Twenty-Third Publications, 1991), 27.

모습도 이와 같다. 홍창현은 “1980 년대 이후 한국 교회가 자본주의와 성공과 성장 지향주의와 자본주의가 결탁하여 점점 대형화, 물량화를 통해 정치적, 경제적 힘을 얻게 되면서 대(對)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일보다 교회의 내부 사역에 더 많은 관심을 쏟게 되었다”고 말한다.[28] 현재 한국 교회의 모습은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교회 중심주의, 물량화에 따른 교회성장주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기인하는 차별적 태도, 종교의 사사화(私事化) 등 세상에 있지만 세상과 동떨어진 곳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29]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문제점은 전통적 교회의 구조적 모순들을 극복하고 다시금 건강한 교회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고자 새로운 패러다임의 형태로 시도되었던 소그룹 사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는 건강한 교회보다 인기 있는 소그룹 사역을 도입하였고, 성장을 위하여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활용한 소그룹의 유형으로 인해 교회의 본질이 흔들렸으며 수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났다. 목회자가 심방, 장례, 행정, 재정까지 다 관여하는 목회자 중심의 의식구조는 소그룹 사역이라는 짐까지 얹게 되면서 목회자가 육체적, 영적으로 탈진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고, 예배만 중시하는 전통적 사고방식은 소그룹 역시 예배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또한 소그룹은 무엇보다 그룹원들 사이에 원활하고 진솔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룹을 인도하는 훈련된 리더자가 필요한데, 가부장적이고 권위주의적 관계에 익숙해 있는 대부분의 리더자들은 구성원들 간에 개인적인 상호 작용을 할 수 있는 관계

[28]홍창현,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생태적 도시 공동체 운동” (Th. 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4), 1.

[29]Ibid.

지향적인 환경을 만들어주지 못했다. 또한 교리나 지식전달 중심의 신앙 교육은 소그룹 안에서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고 삶을 더 깊게 드러내는데 그다지 효과적이지 못했다.[30] 이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정치, 경제, 구조적 문제와 도전들에 대한 진지한 직면과 성찰 그리고 이에 대한 새로운 신학적, 이론적 의식 변화를 위한 진정한 패러다임의 모색 없이 소그룹을 단지 목회자 중심의 교회 성장 위주의 방법론적 도구로만 전락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Berry 는 "기독교 신학은 전통에만 묶여 있지 말고 현대적 상황에 응답해야 하며, 그 상황에 적합한 새로운 신학적 반성과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31] 강남순 역시 "신학적 요청에 의해서나, 실질적인 생존을 위해서나 이제 종교는 보다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응답을 할 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향해야 할 보다 나은 세계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32] 이런 맥락에서 강남순은 21 세기에 들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조명되고 있는 새로운 담론인 "코즈모폴리터니즘"에 특히 관심하고 있다.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터니즘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코즈모폴리터니즘이 새로운 담론으로 재출현하게 된 것은 지구적 위기상황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지구적 위기상황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인류는 어떻게 이러한 위기에 "함께" 대처해야 하는가. 또한 이러한 "함께-의식"은 어떠한 윤리적 또는 정치적 의식에 근거해야 하는가와 같은 물음을 가지고 구체적이고 대안적인 사유방식과 실천방안들이 다양한 분야의 이론가에 의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33]

---

[30]권오봉, 23-38.

[31]Thomas Berry and Thomas Clarke, 74.

[32]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290-91.

[33]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의 담론과 실천(2): 코즈모폴리턴 유토피아의 갈망– 스토아주의 코즈모폴리터니즘," *기독교사상* vol. 664, no. 4 (2014), 258.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주요 특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34] 첫째로, 모든 생명들의 "거시적-상호의존성"의 원리이다.[35] 이러한 "거시적-상호의존성"을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와는 차별화되는데, "공동체주의"가 "공동체"를 윤리적 가치의 중요한 근원으로 보고 있다면, 코즈모폴리터즘은 개별적인 "개인들"을 도덕적 가치의 근원으로 삼는다.[36] 즉 인간을 성별이나 인종, 성적 성향, 민족, 종교 등의 다양한 정체성의 표지에 의해서만 규정하고 한정짓는 "전통적인 공동체주의"의 "필연성"을 넘어서서, 그 포괄의 원을 "우주시민" 또는 "세계시민"으로 확산한다. 성별, 인종, 성적 성향, 민족, 종교 등의 다양한 범주들은 "필연성"이 아니라 "우연성"이며 그러한 우연적 조건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향유하고 정의의 적용 여부를 차별 짓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강남순은 "코즈모폴리턴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 개념은 "모든" 다양한 인간들로 구성된 도덕적 공동체를 지향하며, 그러한 공동체의 근거는 생명들의 상호의존성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한다.[37] 둘째로, "우주적 환대와 책임성의 원리"이다.[38] 강남순은 "코즈모톨리턴 사상이 지향하는 바는 타자를 향한 환대와 책임성의 범주가 사람들의 태어난 장소나 소속된 국가와 같은 영토적인 경계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위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을

---

[34]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의 담론과 실천(4):이 세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 코즈모폴리턴 정체성과 가치들," *기독교사상,* vol 666, no. 6. (2014), 265 -72

[35]Ibid., 265.

[36]Ibid.

[37]Ibid., 266.

[38]Ibid.

강조하고 있다"고 말한다.[39] 이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자연법" 사상 속에서 구현된 것인데, 즉 모든 사람들이 신에 의하여 창조된 신의 자녀이며 이러한 자연법은 신의 의지의 창출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40] 셋째로, "초경계성(trans- boundaryness)의 원리"이다.[41] 강남순은 이러한 "초경계성"의 개념은 코즈모폴리턴 사상에 있어서 매주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연적"이라고 생각하는 무수한 경계들이 인간들 사이의 상호의존성 그리고 모든 인간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존엄성과 생명에의 권리들을 유린하고 박탈하는 것 역시 "자연적"인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는 것이다.[42] 넷째로, 코즈모폴리터니즘은 "초정체성(trans-identity)의 정치학"이다.[43] 강남순은 '초정체성'을 이야기 할 때 유의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한 개개인의 특별한 정체성을 무시하거나 또는 거대담론으로서의 정체성이라는 깃발 아래 개별 인간이 지니는 특정한 정황에서 요청되는 특수 정체성의 문제를 간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44] 즉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초정체성" 개념이란 개인의 특수한 정체성을 끌어안으면서 그 자리만 제한시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의 원을 점점 확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45]

이러한 코즈모폴리터니즘의 주요 특성들과 주요 가치들은 많은 부분에서 생태

[39]Ibid.
[40]Ibid., 267.
[41]Ibid.
[42]Ibid.
[43]Ibid., 268.
[44]Ibid., 269.
[45]Ibid.

신학적 관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관점들은 우주, 지구와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고의 전환을 제공한다. 특히 심종혁은 이러한 생태신학적 관점은 우리로 하여금 "기술 시대의 산업적 신화의 중심에 자리 잡았던 인간 중심주의에서 생명 중심주의, 지구 중심주의로, 우주를 대상들의 집합으로 보는 시각에서 주체들과 친교로 보는 시각으로, 물질과 정신의 이원론적 사고에서 통합적 사고로,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유기체이고 전체적 세계관으로, 지구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은 상호 의존적 관계에 있으며 하나의 유기체와 같다라는 사고로의 전환 등을 꾀하도록 통합적 비전과 패러다임을 제공해준다"고 주장하고 있다.[46]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소그룹의 진정한 본질과 정체성은 상호 관계성과 상호 존중에 있다. 즉 "서로가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대상들의 집합이 아니라 친밀한 현존으로 서로 상생 관계로 연결되어 있는 다양한 주체들의 통교(Commuion)"로 바라보며, 존재 자체의 가치에 대한 경외심과 존중감을 갖는 것이다.[47] 교회 소그룹은 관계지향적이어야 한다는 명제 속에서 이러한 관점과 해석은 오늘날 생태 위기와 인간소외 등과 같은 시대적 문제와 요청 앞에 응답하는 교회로의 갱신과 새로운 변혁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되리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관계지향적 교회 소그룹이라는 장을 통해서 현재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과 진통을 겪고 있는 현 시대적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책들을 찾아 나가고자 하는 그런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적 작업이 될 것이다.

---

[46]심종혁, 19-20.

[47]Ibid., 8.

C. 사용할 용어들의 정의

1. 관계 (Relation, Connection)

본 논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Relation, Connection)이다. 관계, 연결, 접속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여기서는 관계문화이론에서 그 의미를 정의하고 있는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관계' 의 의미를 따른다. 관계문화이론가 Judith Jorden 은 성장 촉진적인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 상호 관계라고 하는데, 즉 "상호간의 만남이 조화를 이루고, 서로가 만남 속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만날 때에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만나려고 하는 태도를 잃지 않으며 상대방과의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려는 태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48] 그리고 서로가 관계를 맺을 때에 가장 필요한 자세는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일정한 선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개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49] 이런 상호 관계의 핵심적인 요소는 "만남(encounter)"과 "적극적인 과정(active process)"이며, 그 핵심적 가치는 "존중"(respect)"라는 것이다.[50] 여기서의 존중 역시 상호 존중의 개념을 내포하며,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에 서로 상호적으로 지지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다.[51] 관계 문화이론에서 말하는 상호 관계를 경험한다는 것은 단순히 편안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관계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노출 (exposure),

---

[48]권진숙, *관계문화이론* (서울:신앙과 지성사, 2013), 49.

[49]Ibid.

[50]Maureen Walker, "How Relationships Heal," in *How Connections Heal:Stories from Relational Cultural Therapy*, ed. Maureen Walker and Wendy B. Rosen (New York: Guilford Press, 2004), 8-9, quoted in 권진숙, 49.

[51]권진숙, 49.

호기심(curiosity), 가능성에 대한 개방성(openness to possibility)"이라는 요소에 참여해야 한다. 관계를 통해 상대방에게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는 두려움이나 모험을 감수해야 하며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관계에 임해야 한다.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 굴욕감이나 경멸감보다는 안전감이나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을 지향한다.[52]

2. 상호 관계성 (Inter Connectedness)과 상호성 (Mutuality)

'상호성 (Mutuality)'의 의미를 살펴볼 때, 옥스퍼드 사전은 "내가 무언가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고려하는 것, 교환하는 것"이라는 뜻이 있고, 웹스터 사전에 의하면 "친밀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같은 감정을 갖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53] 관계문화이론가 Judith Jorden 은 상호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사전적인 정의에 의하면 상호성은 관계와 관련이 있으며, 상호적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로의 감정 상태를 반응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상호성은 상대방에 대한 수용성과 함께 나의 적극적인 주도력을 함께 말하는 것이다.[54]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계문화이론의 상호성의 개념과 더불어 생태여성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상호 관계성이나 상호 의존성의 개념 역시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인다. 이는 "서구의 위계적 이론원적 관계성에서 통전적인 상호 관계성으로

---

[52]Maureen Walker, 8-9, quoted in 권진숙, 49.

[53]Judith V.Jorden,"The Meaning of Mutuality,"in *Women's Growth in Connection*, eds. Judith V Jorden *et el.* (New York: Guilford Press, 1991), 81-96, quoted in 권진숙, 88-89.

[54]Ibid.

회복시키려는 상호 연관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성의 의미"를 뜻하는 것이다.[55] Thomas Berry 는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우주에서는 개별적인 모든 것이 중심이고, 그러한 우주라는 총체 안에서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한다.[56] 또한 김진희는 "상호 관계성의 기본은 사랑인데, 사랑의 관계가 일방적인가 상호적인가의 차이에 따라 신학적 해석이 달라진다"고 말한다.[57] 생태 여성신학적 관점에서의 사랑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자아의 관용적 유연함을 요구하는 것이다.[58] 김진희는 "자아와 타자간의 분리를 넘어 타자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제안하는 샐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의 주체-주체들의 관계성이나 로즈매리 류터(Rosemary Radford Ruether)가 제시하는 존중심을 표명하는 나-당신(I-Thou)의 관계성은 서양적 관점에서의 주체-객체의 관계에서 형성되는 타자성을 극복하려는 제안들"이라고 주장한다.[59]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 의미하는 상호성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모든 만물은 우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의존하는 관계 속에 놓여있으며 이러한 상호성은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친밀감과 경외심과 존중과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 관계에 있어서 일방적이지 않으며 상호적인 것으로, 서로의 존재를 성장시키려는 의도와 목표를 가지고 상호간에 친밀한 연결감을 느끼며 활발한 소통과 교류를 이루는 관계라고

---

[55]김진희, "역동적 우주, 그 지평에 놓인 여성의 정체성:도가적 지혜로 푸는 생태여성신학," in *생태신학강의,* eds. 변선환 아키브 • 동서종교신학연구소 (서울:크리스찬 헤럴드, 2006), 248.

[56]Thomas Berry*, The Dream of the Earth*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1988), 34.

[57]김진희, 239.

[58]Ibid.

[59]Ibid.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3. 소그룹

Kart Lewin 은 “그룹의 본질은 구성원들의 유사성이나 이질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린다.[60] 또 W. Johnson 과 Frank P. Johnson 은 소그룹에 대해 정의하기를, “소그룹이란 얼굴과 얼굴의 상호작용이 있는 사람들의 집합으로, 구성원 개개인이 그 그룹의 일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다른 구성원들도 알고 있으며, 그룹 활동을 통해서 상호간의 만족을 얻는 모임을 말한다”고 일반적인 정의를 하였다.[61] 이러한 정의는 소그룹의 본질에 있어서 그룹원들 사이의 상호 관계성(Mutuality)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소그룹은 그 존재 자체로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유기체요, 우주적인 거룩한 신비가 깃든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의미가 확장된다. 심종혁에 의하면, Berry 가 제시하는 새로운 우주 이야기는 무엇보다도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존재들 간의 상호 의존적인 관계성을 강조하면서 각 주체들이 지닌 고유한 역할을 드러내고 실질적인 행동을 이끌어내는 힘을 지닌 기능적 우주론이라고 말한다:

> 우주는 각 구성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지니면서 동시에 전체적인 통일성을 이루는 유기체이다. 그래서 보통은 ‘우주나무’(Comic Tree)’혹은 ‘생명나무’(Tree

[60]Kart Lewin, “Frontier in Group Dynamies” *Human Relations* vol.1,no.1(June 1947), 5.

[61]David W. Johnson and Frank P. Johnson, *Joining Together Group Thory and Group Skills* (Englewood Cliffs : Prentice-Hall, Inc., 1975), 15.

of Life)와 같은 상징으로 표현되는데,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이 함께 이루는 총체로서 각각의 구성은 서로 다른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유기적으로 서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여 그 생명력을 유지한다. 이러한 상징은 우주라는 유기체 전체의 효율적인 기능과 그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상호 협력을 암시한다. [62]

즉, 우주에서는 개별적인 모든 것이 중심이고, 그러한 우주라는 총체 안에서 만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63]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 소그룹의 진정한 본질은 상호성, 상호 관계성에 기초한 상호 존중과 상호 공감에 있다. 소그룹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서로의 관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살아있는 유기체인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개념의 소그룹을 관계지향적 교회 소그룹의 개념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교회 소그룹은 서로간의 상호 관계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고 구체화 되는 자리요, 파괴되고 소외된 생명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재창조되어 그 생명력이 활짝 꽃피우는 하나님의 활동의 자리인 것이다.

D. 연구의 청중 및 대상

본 연구의 1 차적인 대상은 연구자 나 자신이다. 내가 몸담고 자라왔던 문화를 비판적으로 통찰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러한 문화와의 관계 속에 형성된 나의 자아를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것이며, 개별적이고 단절과 분리된 개체로서의 존재가 아닌 우주와 연결되고 생태 세계와 연결되고 다른 존재들과 상호 관계성을 경험하는 통전적이고

[62]심종혁,7.
[63]Thomas Berry, *The Dream of the Earth*, 34.

관계지향적 존재로의 인식론적 전환을 가져다 줄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환경은 충북 청주 시내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북문로에 세워진 62 년의 역사를 지닌 북문교회와 성도들이다. 더 나아가 소그룹 운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소그룹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 한국 교회들이 연구 대상이자 청중이다. 연구 대상과 장소를 북문교회로 택한 것은 목회 현장의 경험을 근거로 해야 하는 현장성 때문이며, 북문교회의 역사가 62 년이 되어 한국 기독교 장로교회의 전통을 다소 유지하고 있는 목회적 환경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한국의 많은 장로 교회 중 하나에 불과하지만, 이러한 시도와 노력이 귀감이 되어 계속해서 확산되기를 바라는 소망도 품어본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청중은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는 목회자들이다. 관계 지향적인 소그룹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들이 현 시대의 교회의 역할과 사명을 고민하고 새로운 변화의 물결을 일으키고자 하는 목회자들에게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그나마 한국 기독교 장로교단은 한국 기독교 교단 중 일찍부터 “흩어지는 교회” 로서의 선교적 신학적 배경하에 정의, 평화, 창조 질서의 보전이라는 JPIC 운동에 동참해왔다.[64] 그러나 아직도 교회 현장에서의 대부분 소그룹은 전통적인 신학적 패러다임에 기반을

[64]J. C. Hoekendijk, *The Church Inside Out 흩어지는 교회,* trans. 이계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1997) 20 세기선교 신학자인 요하네스 호켄다이크(Johannes C. Hoekendijk)의 '흩어지는 교회'라는 개념은 세상이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켄다이크의 선교는 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선교는 전체 역사 속에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한다. 곧 하나님이 교회 안팎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역사의 사건을 통해서 세상을 주관해 가신다. 따라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교회의 사도적 사명의 영역은 세계이며, 사도적 사명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 혁명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사도직은 설교와 친교에서, 그리소 세상을 향한 봉사에서 수행 되어지는 것이라고 말한다.

두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해 기존 교회의 목회자들에게는 이러한 새로운 신학적 성찰을 통해 생태신학적 패러다임의 전환의 중요성을 자각하고, 이에 입각한 관계지향적 소그룹 운동을 펼쳐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한국 교회가 현 시대의 위기와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새로운 대안을 창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기여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E. 연구의 제한성과 공헌

본 연구는 관계지향적 교회 소그룹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하기 위한 질적 연구로써, 북문교회 소그룹의 한 사례라는 제한성을 지닌다. 그러나 질적연구로써의 이 연구는 한국교회에 대한 보편성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북문교회 소그룹을 사례로 소그룹 사역의 한 현장을 연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또한, 지금까지 한국 교회의 가장 대표적이고 전통적인 소그룹은 구역 예배 모임과 같은 형태의 소모임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그룹을 분석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북문 교회 목회 구조 즉, 조직과 운영, 목회 철학과 목회방침, 리더쉽의 형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형태들, 회의 및 의사 결정 기구 등에 대한 고찰은 본 연구에서는 제외되었다.

본 연구는 소그룹 활동을 하는 평신도의 상호 관계성의 경험을 보다 깊이 이해, 분석하는 주된 목적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다른 교회의 소그룹 사역자들의 공감을 자아내는 것이 목적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담임목사와 부부 관계이며, 동시에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것을 밝힌다. 따라서 연구자와 연구 참여자의 관계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성이 연구에 얼마나 다양하게 그리고 은연 중에 자료의 수집, 해석,

글쓰기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가능성과 딜레마에 대하여 연구자 본인 스스로의 솔직한 해체적 작업을 하도록 노력하였다.

지금까지 교회 성장이나 교회 활성화를 위한 교회 소그룹에 관한 연구는 많이 시도되어왔다. 또 생태 위기에 대한 대안 공동체로서 교회 밖 공동체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생태신학과 관계문화이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교회 소그룹의 이해와 연구는 거의 전무 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단순히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가지고 교회 소그룹 현장을 질적 연구 방법에 의해 분석했다는 점에서 보다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성장의 도구로만 머무르는 소그룹이 아닌 상호 존중과 상호 관계성을 경험할 수 있는 관계 지향적 소그룹이라는, 그 자체로서의 본질과 정체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이 공헌하는 바가 크리라 기대한다.

Chapter II

생태신학과 관계문화이론 (Ecotheology and Relational Cultural Theory)

A.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보는 "관계"

1. 생태적 세계관과 생태신학

생태신학은 생태학적 전망을 기반으로 한 생태학에서 출발한다. 즉 '전체를 시야에 넣고 모든 것을 과정적으로, 관계적으로, 사건적으로 보는 신학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65] 생태학의 개념은 1970 년대 이후 인간의 기계적 문명이 생태계 전반을 급속도로 파괴하고 있으며 이는 인류뿐만 아니라 지구 행성 전체의 절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기 시작되면서, 생태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는 세계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66]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1970 년 헤켈(E. Haeckel)이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를 생물학의 범주에서 논의하면서 최초로 사용하였다. 그는 생태학이라는 용어로 'ecology'를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어로 '집'이라는 의미인 오이코스(oikos)와 학문의 의미인 로고스(logos)의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 설명하자면 "집을 위한 학문" 또는 "삶의 공간에 관한 학문"이다.[67] 즉, 생태학은 '집에 있는 '유기물에 대한 학문을 가리킨다.[68] 오이코스가 의미하는 '집'은 생명체들과 이들의 생존의 터인 환경을 포함하는 체제를 뜻한다. 다시

---

[65]송호석,"생태학적 여성신학," *神學展望* no.123 (1998), 107.

[66]신정호, "교회교육에 대한 생태학적 문제제기와 대한 모색" (Th. M. thesis,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5.

[67]이정배, "창조에 대한 신학적 이해," *기독교사상사*, no. 6 (1987), 14.

[68]Eugene Odum, *Fundamentals of Ecology*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71), 3.

말해, 오이코스는 개개의 구성원이나 부분의 상호 작용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그런 '집'을 가리킨다. 따라서 생태학은 생명체들, 그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무기물과 유기물 사이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를 포함한다. 생태학은 특정한 생태계 안에 복잡하게 얽혀있는 연결망, 관계, 상호의존 등을 탐구한다.[69] 요컨대, 생태학은 유기체들과 그들의 터전인 환경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70] 이 세계를 하나의 집으로 보고 이 집 안에서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함께 공생, 공존하며, 이를 위해 상호의존적이고 유기체적 관계에 있다는 것을 탐구하고 인지하게 하는 학문이 바로 생태학이다.[71]

생태계 내의 모든 존재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보이지 않는 그물망을 형성하고, 서로 영향을 미친다.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는 한, 아무리 미비해 보이는 존재도 자신의 고유한 존재 의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존중되어야 한다. 조현철은 생태학의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생태적 세계관의 원리를 다음의 세 가지로 설명한다.[72] 첫째, "상호연결성의 원리"이다.[73] "생태적 세계관은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궁극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으며 의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

[69]Sean McDonagh, *To Care for the Earth: A Call to a New Theology* (Santa Fe, New Mexico: Bear & Company, 1986), 17.

[70]Carolyn Merchant, *Radical Ecology: The Search for a Livable World* (New York: Rouyledge, 1992), 8-9.

[71]이정배, 14.

[72]Hyun-Chul Cho, *An Ecological Vision of the World: Toward a Christion Ecological Thology for Our age* (Roma: Gregorian University Press, 2004), 13-15.

[73]조현철,"생태신학의 이해: 생태 신학의 교의 신학적 체계 구성을 위하여," *신학과 철학*, no. 8 (2006), 5-6.

것이다.[74] 둘째, "본질적 가치의 원리"이다.[75] "생태적 세계관은 세상의 모든 개별 존재가 서로 연관되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보잘것없이 보이는 것이라도, 그 자체의 존재 이유와 역할, 다시 말해서,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한다"는 것이다.[76] 셋째. "포괄성의 원리'이다.[77] "이 세상에 상호연결성과 본질적 가치의 두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과 개체는 없다."[78] 따라서 생태적 세계관의 범위는 자연과 사회 모두를 포함하며 양쪽 모두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연의 모든 존재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또한 우주와 지구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자연과 인간 사회 모두 적용된다는 것이다."[79] 그러므로 조현철은 생태신학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생태신학이란 기독교 신학 전통에 바탕을 두고 만물의 상호연결성에 대한 감수성을 함양하거나 회복하고, 타자에 대한 지나친 도구적 관점을 극복하여 타자의 본질적 가치를 존중함으로써, 생태 의식을 높이고 생태적 세계관을 형성하려는 신학적 노력이라 할 수 있다."[80]

생태신학의 태동과 역사적 발자취를 살펴볼 때, 기독교 신학에서 생태신학적 탐구가 시작된 것은 근래의 일이다.[81] 기존의 기독교는 인간과 자연의 분리, 창조와

[74]Ibid.
[75]Ibid.
[76]Ibid.
[77]Ibid.
[78]Ibid.
[79]Ibid.
[80]Ibid.
[81]Ibid.

구원의 분리가 큰 영향을 미쳐왔다.[82] 즉 인간이나 인간의 영역만을 신학의 주된 영역으로 간주하였고, 구원에만 지나치게 관심을 기울인 반면 상대적으로 창조는 경시하였다. 더욱이 근대 이후 다윈의 진화론을 비롯한 자연 과학이 성서와 교회의 가르침에 대해 제기한 도전 앞에서, 교회는 인간을 제외한 자연을 과학의 영역으로 넘겨주고 인간이나 인간 영혼의 구원만을 강조하게 되었다.[83] 또한 "20 세기 초 게하르트 폰 라트(Gerhard von Rad)와 같은 성서학자들은 "구약 성서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이며, 창조는 구원의 지평을 이스라엘 민족에서 우주 전체로 넓히기 위한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성서 이해를 주장하면서, 창조와 구원의 분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84]

이러한 기존의 신학적 배경 속에서 본격적으로 생태신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게 된 것은 1970 년대 이후 생태 문제의 심각성을 겪고 깨닫기 시작한 이후부터이다. "1967 년 역사학자 린 화이트(Lynn White, Jr.)는 인간들이 지배하고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기독교의 믿음이 서구의 과학 기술과 진보에 대한 신념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들이 자연에 대해 지나치게 인간 중심의 태도와 가치를 부추겼다고 비판하였다."[85] 이러한 그의 비판은 생태 문제와 관련하여 기독교가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하도록 일깨워준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개신교는 세계교회협의회 (WCC)를 중심으로 신앙과 생태 문제의 통합을 시도하며 사회, 정의,

---

[82]Ibid.
[83]Ibid. 7.
[84]Ibid.
[85]Ibid. 8.

평화, 창조의 보전이라는 주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신학자들 역시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대한 종교와 신학의 영향을 깊이 생각하며 기독교 신학 전통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하였는데, "리처트 클리포드(Richard Clifford)와 앤 클리포드(Anne Clifford)와 같은 성서 신학자들은 성서에 대한 지나친 인간 중심의 이해와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과 자연 그리고 창조와 구원의 균형과 조화의 측면에서 성서를 이해하려고 하였다."[86] 또한 "위르겐 몰트만(Jurgen Moltmann)과 데니스 에드워즈(Denis Edwards)와 같은 조직 신학자들은 생태적 관점에서 전통 교의들을 탐구하여 기독교 교의가 생태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길을 찾아왔다."[87]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와 션 맥도나휴(Sean McDonagh)와 같은 몇몇 해방 신학자들은 환경 파괴의 일차적 희생자가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생태 위기와 가난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하여, 신학의 영역에 가난한 이들과 함께 자연을 포함하도록 해방 신학의 지평을 넓혀왔으며(생태해방 신학), 로즈매리 류터(Rosemary R. Ruether), 샐리 맥페이그(Sallie McFague), 엘리자벳 존슨(Elizabath A. Johnson)과 같은 여성 신학자들은 역사적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과 자연에 대한 착취가 가부장적 사회구조와 같은 남성우월주의에서 비롯되었음을 지적하면서 이의 극복을 위한 신학적 노력을 기울여왔다(생태여성 신학). 이 외에 윤리 신학과 영성 신학과 같은 영역에서도 생태 문제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생태 윤리와 생태 영성)."[88]

---

[86]Ibid. 9.
[87]Ibid.
[88]Ibid.

2. 기계론적 세계관과 인간소외

현대 사회는 타자(他者), 즉 타인과 자연에 대해 단절감과 도구화적 관점을 그 특징으로 하는 기계론적 세계관이 곳곳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으며, 이것은 상호 연결성과 본질적 가치라는 생태적 세계관의 원리들이 여전히 우리 안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알려준다.[89] 근대 이후 서구 사회를 비롯해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기계론적 세계관은 베이컨(Francis Bacon), 데카르트(Rene Desdcartes), 뉴턴(Isaac Newton)등에 의해서 형성되었다. 베이컨은 인간은 지식의 힘으로 자연의 비밀을 파헤쳐 자연을 지배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데카르트는 자연은 공간적 연장성을 지닌 물질이며 수학으로 자연의 기계적 법칙을 이해할 수 있다고 했고, 뉴턴은 자연은 하나의 정교한 기계로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90] 조현철은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자연은 그 신성함과 생명력이 제거되어, 탈성화(脫聖化)되고 대상화되었다"고 말한다.[91] 또한 자연은 일차적으로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대상으로 변했으며, 교체와 수리를 할 수 있는 여러 부품으로 이루어진 기계로 여기게 되었다는 것이다.[92]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주체와 객체로 엄격하게 분리된다. 자연은 기계취급을 당하여 오직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인간의 임무는 기계인 자연이 인간에게 잘 봉사하도록 자연을 이해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다.[93] 이렇듯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에

---

[89]Ibid.

[90]Sean McDonagh, 69-73.

[91]조현철, 4.

[92]Ibid.

[93]Ibid.

대하여 철저하게 인간 위주의 도구적 관점을 낳게 된 것이다.[94]

생태학자 Thomas Berry 는 이러한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인하여 인류가 존재함에 있어서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그만 상실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자연세계와 더불어 누리던 관계, 즉 내적 통교, 친밀감, 경외 등과 같은 감성적 영역이다.[95] 인간은 이러한 자연과의 친교능력을 상실하면서 점차 자연세계와 유리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그는 이러한 현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진단 마저 내리고 있다:

> 현재의 난관은 인간의 정신, 인간의 지성 뿐만 아니라 감정과 감성에 기계적인 고정관념이 내재한다는 점이다. 자연세계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결과 우리는 다른 존재와의 친밀감이 약화되었고, 주위의 모든 존재들을 인식할 경우에도 그들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되었다.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언어를 우리는 잃어버렸다. 현재 우리는 자폐증적 상황에 빠져있다.[96]

즉, 지구가 인간에게 위기를 가져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모든 존재의 신성함을 느끼는 우리의 능력 – 즉 감사하는 마음과 환경의 성스러움을 인정하는 마음, 경외심을 느끼는 우리의 능력- 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렇듯 21 세기 현대인들은 Berry 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폐증적 상황'에 놓여있으며, 가장 큰 특징은 인간소외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94]Ibid.

[95]Thomas Berry, *The Dream of the Earth*, 16.

[96]Ibid.

B. 문화이론적 관점에서 바라본 “관계”

1. 관계의 정의

현대인들은 고독과 외로움 속에서 깊은 인간적 만남을 그리워한다. 그러나 정작 타인과 관계를 맺다 보면 이러한 깊이 있는 만남,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갖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고통과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많이 있다. 상담 이론으로도 발전한 관계문화이론(Relational Cultural Theory; “RTC”)은 바로 이러한 인간 소외가 현대인에게 치명적인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에 주목한다.[97] 권진숙은 관계 문화 이론의 주요 개념은 관계(Relation, Connection)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여기서 사용되는 관계의 단어 개념 속에는 ‘성장을 촉진시켜 주는 관계’라는 뜻이 함의되어 있다.[98] 이 관계의 개념 속에는 서로간의 ‘성장 촉진적인 관계’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좀 더 엄밀히 말하면 ‘상호관계’의 의미가 더 크게 자리잡고 있다. 권진숙은 관계 문화 이론에서 사용하는 상호 관계의 일반적 요소들로서, “관계의 조화, 관계 속에서 서로가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지지,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하기, 관계 속에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주제들을 서로 돕는 자세”등 을 말하고 있다.[99] 즉, RCT 의 근간이 되는 개념은 인간의 성장과 성숙이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인간이 관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성장은 상호공감(Multual Empathy)과 상호 힘을 실어주기(Multual Empowerment)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장을 돕는 관계(Growth-

---

[97]권진숙, 12.
[98]권진숙, 48.
[99]권진숙, 49.

Fostering Relationship)가 필수적이며, 관계 안에서 이러한 공감과 힘을 얻지 못할 경우 성장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100]

2. 관계 단절의 원인

권진숙은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계'(Connection)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관계를 단절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한다.[101] 또한 "인간은 자기의 감정이나 경험이 자기와의 관계 속에 있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할 경우, 그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자신을 분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102]

권진숙은 관계 문화 이론에 따르면, 관계가 단절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에서는 관계가 단절되는 여러 가지 이유와 특징들이 있다고 말한다.[103] 첫째 유형은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강하고 자급 자족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라고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다.[104] 그들은 독립과 강한 의지라는 미명 아래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잡고 있는 외로움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갈망을 깨닫지 못하고 돈이나 지위, 명예 등에 집착하며 일 중독에 빠지기 쉽다. 둘째 유형은 "사회, 문화적으로 양산된 단절"이 있다.[105] 예를 들어 다문화 가정, 장애인과 같은 소외 계층의 사람들은 관계를 가지고 싶어도 여러 가지 사회적 문화적

---

[100]Judith V. Jordan and Linda M. Harting, "New Developments in Relational – Cultural Theory," *in Rethingking Mental Health and Disorder: Feminist Perspective*, eds. Mary Ballou and Laura S.Brown (NY:Guilford Press, 2002), 48-70.

[101]Ibid.

[102]Ibid.

[103]권진숙, 67.

[104]Ibid.

[105]Ibid.

제한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는 삶의 경험을 통해 자기 스스로를 소외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셋째 유형은 “계속해서 관계가 단절되는 삶의 경험을 통해 자기 스스로 소외시키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106] 이것은 특히 유의 깊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단절이 개인적인 이유와 경험에서 비롯되기도 하지만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나 문화적 이유와 경험과 전혀 무관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단절의 원인을 개인에게서만 찾을 것이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인들을 분석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을 시사하고 있다. 네 번째 유형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계하는 상대방이 부정적인 감정을 계속 표현하거나, 아무리 노력을 해도 관계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이다.[107] 관계는 서로 상호간에 맺는 것이기 때문에 한 개인의 일방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 다섯 번째 유형은 “아무리 상호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노력해도, 상호 관계가 실패하는 경우”에도 관계를 단절하게 된다.[108] 자신이 원하는 관계는 상호적인데 상대방이 비상호적이거나 위계적인 관계 혹은 학대적인 관계를 유지할 경우 그 관계는 단절될 수 밖에 없다. 여섯 번째 유형은 “관계가 위축”될 때 단절을 경험한다.[109] 일곱 번째 유형은 “관계 속에서 수치심을 느낄 때”에도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게 된다.[110]

따라서 RCT 의 주요한 목표는 상호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관계를 생성하고

[106]Ibid.
[107]Ibid.
[108]Ibid.
[109]Ibid.
[110]Ibid.

유지하는 것이다. 즉 서로가 서로를 성장하게 도울 수 있는 건강한 관계성 속에서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음의 다섯 가지 경험을 하게 된다. 첫째, 더욱 더 많은 관계를 이루고 싶은 열망을 느낀다. 왜냐하면 좋은 관계라는 것이 어떤 느낌이라는 것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이다. 둘째, 관계를 통해 강한 열정과 에너지를 경험하게 된다. 셋째, 자신에 대해 또 자기와의 관계성 속에 있는 상대방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된다. 넷째, 인간 관계 속에서 더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긴다. 다섯째, 전반적으로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의식이 향상된다.[111]

3. 상호성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

상호성 이론의 두 가지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상호성(Multuality)이다. 권진숙은 상호성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한다.[112] 즉 상호성이란 “관계성 속에 있는 각 개인이 자신의 감정, 생각, 그리고 느낌들을 표현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감정, 생각, 느낌등과도 교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상호성을 통해 서로 동등하게 교류하면서 함께 변화, 발전해간다”는 것이다.[113] 또 한가지 개념은 공감(Empathy)인데, “다른 사람의 일시적인 심리적 상태를 함께 경험하고 이해하는 내적인 경험”을 말한다.[114] 공감이란 자기 자신의 경험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과 함께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고도의 복합적인 능력이다.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경험을 자기도 보고 느낀다. 따라서 서로간에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호관계성 안에 모든 사람이 공감적으로 관계를 맺을

---

[111]http:Wikipedia.org/wiki/Relational-Cultural Therapy (Accessed January 28, 2012).
[112]권진숙, 89.
[113]Ibid.
[114]Ibid. 79.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115]

특히 권진숙은 “관계 문화 이론에서는 인간을 관계적 존재로 이해하고 있으며, 건강하게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인간을 독립된 개체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116] 왜냐하면 그 어떤 관계도 문화의 영향의 영역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으며 또한 문화가 그에 속한 구성원의 경험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틀 없이 인간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저급하게 취급 당하는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고통과 정신적 상처의 기저에는 문화적인 억압, 사회적 따돌림, 그리고 다양한 양태로 행해지는 사회적 불의들이 깔려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RCT 이론은 심리치료 상담가들에게 단순한 증상 개선만을 목표로 하지 말고 증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는 문화적 억압, 사회적 무시, 불의들의 부정적 영향을 개선할 수 있는 좀 더 상황적인 접근을 하라고 강조한다. 더 나아가 상담가들이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삶 속에서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돕는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한다.[117] 관계 문화 이론의 이러한 통찰은 인간의 존재가 주변 대상과 확실히 구별된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 우주와 연결되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이고 유기적인

[115]권진숙, 79-88.

[116]권진숙, 14.

[117]Dana L. Comstock, Tonya R. Hhammer, Julie Strendatzsch, Kristi Canon, Jacqueline Parsons and Gustavo Salazer Ⅱ, “Relational – Cultural Theory: A Framework for Bridging Relational, Multiculural, and Social Justice Competencies,” *Journal of Counseling Development*, vol. 86(2008), 282-83.

존재라고 이해하는 생태학적 신학의 관점과 같은 흐름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생태 여성 신학에서는 이러한 상호 관계성이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과 창조간의 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가 잘 어우러지는 대안적 관계성으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상호관계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데, Rita Nakashima Brock 에 의하면 맥페이그의 하나님의 사랑은 매우 구체적으로 관여하는 사랑, 즉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사랑이다. 그래서 Nakashima 는 이러한 "관용, 공감, 유연함, 양도를 바탕으로"하는 관계적이고 총체적인 사랑은 가부장제적 권력과 지배를 상징하는 힘의 특성을 극복하는 치유적 힘을 갖는다고 주장한다.[118] 김진희는 "진정한 상호관계성이란 관계에 참여하는 존재들의 동시적 참여 안에서만 가능한 가능한데, 이는 단순한 이중적 구조- 주체와 객체라든지 자아와 타자라는 구조- 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동체적 구조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주장한다.[119] 다양성과 복잡성을 함축하는 유기체적 구조 안에서만 보더라도 각각의 관계는 나름의 개체적 관계를 갖기도 하지만 전체의 부분으로서 전체와 맞물린 관계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체와 전체와의 관계는 항상 상호적이며 역동적이며 동시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그는 진정한 상호 관계성은 양자간의 관계 (Relationship-between),"와 더불어 "전체 안에서의 관계(Relationship-within)"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120] 나는 김진희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러한 상호관계성을 경험하는 장으로서의 교회 소그룹이 바로 관계지향적

[118] Rita Nakashima Brock, *Journeyby Heart: A Chirstology of Erotic Power* (New York: Crossroad, 1996), 30.

[119]김진희, 240.

[120]Ibid.

교회 소그룹의 개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관계지향적 교회 소그룹은 서로간의 상호관계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고 구체화 되는 자리요, 파괴되고 소외된 생명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재창조되어 그 생명력이 활짝 꽃피우는 하나님의 활동의 자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 소그룹은 목회자 등의 자본주의적 성장주의의 도구로 전락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자체로도 충분한 생명력을 지닌 가치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인식하며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상호관계성을 경험하는 관계지향적 소그룹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환을 통하여 생명을 온전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며 생명력을 꽃피우는 생명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Chapter Ⅲ

관계지향적 교회 소그룹을 위한 연구 방법

(Research Method for Relationship-Oriented Church Small Groups)

본 연구는 상호 존중과 상호 관계성을 경험하는 관계지향적 교회 소그룹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실천적인 작업이다. 생태신학과 관계문화이론의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자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 소그룹의 현장 관찰과 질적 면접을 통하여 교회 소그룹의 현장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A. 질적 연구

질적 연구는 연구자가 연구대상이 행위하고 생각하는 일상에 참여하거나 그 일상을 관찰하면서 연구대상이 갖고 있는 경험 세계와 가치관을 당사자의 주관적 시작으로 이해하는 연구 방식을 말한다.[121] 다른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 비하여 질적 연구가 갖는 특별함을 5가지 특징으로 살펴보면, 첫째, "질적 연구는 인간 삶의 의미를 현실 세계의 조건하에서 연구한다."[122] 둘째, "질적 연구는 연구 참여자들의 견해와 관점을 묘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방법들과 구분된다."[123] 여기서 질적 연구의 중요 목적은 참여자들의 관점을 포착하는 것이다. "질적 연구에 등장하는 사건과 생각은 연구자들이

---

[121]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연구 방법론*(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205.

[122]Robert K. Yin, *Qualitive Research from Start to Finish 질적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trans. 박지연, 이숙향 and 김남희 (서울: 학지사, 2013), 36.

[123]Ibid.

가진 가치, 예상이나 의미가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이 현실에서 일어난 사건에 부여한 의미를 대표한다."[124] 셋째, "질적 연구는 맥락적 조건(사람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사회적, 제도적, 환경적 조건)을 다룬다."[125] 맥락적 조건은 많은 면에서 모든 인간사에 막대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회과학 연구 방법으로는(생애사 제외) 이러한 조건을 다루기 어렵다. 넷째, "질적 연구는 단지 일기나 일상에 대한 연대기가 아니다."[126] 일기나 연대기는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다소 평범한 기록이라면, 이와 달리 질적 연구는 기존의 개념 또는 새로 등장하는 개념을 통해 이 사건들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섯째, "질적 연구는 다양한 출처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고 통합하여 제시하려고 항상 노력한다."[127] 이러한 특징을 살펴볼 때 질적 연구에서는 현실 세계의 환경과 그 안에 사는 연구 참여자들에 대해 연구해야 하기 때문에 면담, 관찰, 심지어는 문서와 유물에 대한 검토까지 하게 만들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연구의 결론은 이러한 다양한 출처를 통해 수집된 자료들 간 검증을 기반으로 전개될 것이다.

본 연구는 신학적 이론과 구체적인 삶의 목회 현장 사이의 연결성과 그 해석에 초점을 둔 실천적 연구 작업이다. 따라서 목회 현장의 생생하고 구체적인 문제들을 신학적 틀을 가지고 들여다보며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들을 통해 새로운 대안적 실천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이러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사용하는 것은 아주 적절한 방법론이라 하겠다.

---

[124]Ibid.

[125]Ibid.

[126]Ibid. 37.

[127]Ibid. 38.

B. 소그룹의 사례 영상 촬영 및 개별 면담

본 연구는 자료 수집 방법으로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교회 소그룹의 한 사례를 그룹원들의 동의하에 참여 관찰하는 방법으로 실제 소그룹 모임을 영상으로 촬영하였고, 또한 참여자들과 개별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과정을 열거하자면, 연구자 본인은 남편이 담임 목사로 시무하고 있는 북문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총 6 교구 중에서 두 교구를 담당하고 있다. 본 교회는 구역 소그룹은 총 6 교구, 그 밑에 21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매 주 수요일마다 담임 목회자와 각 교구 담당 교역자들 중심으로 구역모임의 리더인 구역장, 구역강사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인은 구역장, 구역강사 리더 교육 모임에서 본 논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자발적인 소그룹 모임 연구를 위한 촬영에 참여할 의사를 묻고, 21 개의 소그룹 가운데 비교적 소그룹 활동이 활발하고 또한 본 연구에 참여의사가 있는 2 개의 소그룹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소그룹 리더를 통해 그룹원들의 동의를 구한 가운데 (참가자 동의서는 부록 I : 연구 참여 동의서 참고) 약속된 구역모임 시간을 확인하고 구역모임을 하고 있는 장소를 직접 찾아가서 구역모임이 이루어지는 동안 동영상 촬영 및 참여 관찰을 실시하였다. 특히 구역 모임이 시작되고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연구자에 의한 연구 방법과 통제를 최소화하고 연구 참여자의 자율적인 생각을 따르기 위해 연구 참여자들(소그룹 참여자)에게 먼저 연구동의서를 함께 읽고 연구의 주제와 목적, 취지와 방법 그리고 연구의 윤리적인 부분과 권리 등을 설명하였다. 연구 동의서에는 면담이나 촬영 도중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촬영이나 면담 자체를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면담에 대한 질문이나 문제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에게 언제든지 연락할 수 있도록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 또한 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고 대화 내용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참여자의 동의하에 촬영기를 사용하며 면담 내용이 논문 이외에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후에 촬영된 내용은 꼭 파기한다는 항목이 담겨져 있었다. 면담내용의 기록시 익명성을 보장하여 참여자들의 이름을 가명으로 바꾸어 논문에 기재됨을 설명하여 주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 연구동의서 서명을 받은 후 동영상 촬영 및 참여관찰에 들어갔으며, 녹화를 모두 마친 후 그룹 참여자들 가운데 4 명을 다시 개별적으로 인터뷰 시간과 장소를 약속한 후에 약 30 분에서 30 분가량 면담을 실시하였다.

개별 인터뷰에는 연구 참여자의 생각과 의견을 충실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비지시적, 비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하였다. "면접"은 심층적(In-depth)이고, 반구조화(Semi-Structured)된 또는 느슨하게 구조화(Loosely structured)된 형태의 면접을 지칭하는 용어이다.[128] "면접"의 고유한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질적 면접은 일대일 상화작용, 커다란 집단의 면접, 초점 지단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대화의 상호작용적 교환이다. 둘째, 상대적으로 비공식적인 형태를 취한다. 즉 공식적인 질문이나 답변의 형태보다는 얼굴을 맞대고 대화나 논의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셋째, 주제가 화제중심적이고 전기적, 이야기식의 접근 방식을 취하여 연구자가 질문의 구조화된 목록 없이, 다루고자 하는 일정 범위의 화제, 주제나 논의만을 가지고 임한다. 넷째, 면접은

---

[128]Jennifer Mason, *Qualitiative researching 질적연구방법론,* trans. 김두섭 (파주시:나남출판사, 2010), 21.

적절한 맥락이나 분위기에 초점을 맞추어 해당되는 지식을 얻어내는 작업이다. 따라서 피면접자나 상호작용 자체가 자료출처가 된다.[129] 마지막으로, 면접은 이미 존재하는 지식을 수집하기 보다 만들어 가는 과정이므로 질문은 실제 생활 속의 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구문제와 연구자 자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지적 궁금증을 규명하는 성격의 것이 되어야 한다. 질문의 방식이나 태도 역시 피면접자가 납득할 수 있어야 하며 피면접자에 대한 사전지식을 바탕으로 그의 주변상황, 경험 등을 고려하고 연구자의 윤리적 이장에 위배되지 않고, 피면접자의 욕구와 권리를 고려하며 면접하는 상호작용의 흐름을 방해하기보다는 원활히 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하고, 연구제의 연구문제에 관련되는 주제와 화제에 적절한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13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연구 방법의 기술들을 토대로 연구 참여자에 의존하기 위해 비지시적, 비구조화된 면접을 사용하였다. 면접은 1 회에 약 30 분에서 50 분 정도 교회 소그룹실이나 조용한 카페 등 약속된 장소에서 진행되었고, 면접 중에 비언어적 표현과 특징, 면담에 대한 전반적인 느낌이나 참여자의 반응을 보충하기 위해 현장 기록 노트를 사용하였으며 참여자가 긴장하지 않고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최근에 경험한 소그룹 경험이나 에피소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자연스럽게 면접을 시작하였다. 연구 참여자들과는 이미 형성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모두 협조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었고 보다 심층적인 면접을 유도할 수 있었다.

---

[129]Ibid., 98.

[130]Ibid., 110–12.

C. 연구 참여자

본 연구 논문은 관계 지향적 교회 소그룹에 관한 연구이므로 연구 참여자들은 소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교회 교인들이 주 대상이다. 특별히 본 연구는 본인이 부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북문교회의 대표적인 교회 소그룹 형태인 구역예배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교인들을 주 대상으로 실시하였는데, 총 21 개의 구역가운데 비교적 소그룹 활동이 활발하고 또한 본 연구에 참여의사가 있는 2 개의 구역을 선정하였다. 연구 참여 대상 구역들은 같은 지역에 사는 교인 가정들을 중심으로 각기 50 대에서 80 대에 이르기까지 총 15 명 정도가 구역원으로 속해 있다. 그러나 구역 예배모임은 주로 주 1 회나 월 2~3 회 정도 매주 목요일 오전 11 시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실제 연구 대상자는 구역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여자 성도들을 중심으로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그 중에 한 구역을 동영상 촬영 분석을 하게 되었으며, 그 중에 4 명과 개별적인 면접을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7 명의 여성들로 연령은 50 세에서 85 세까지, 20 년 이상의 구역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간단한 인적 사항은 다음과 같다:

연구참여자 A : 67 세 여성으로 30 년의 구역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B : 60 세 여성으로 23 년의 구역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C : 74 세 여성으로 37 년의 구역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D : 74 세 여성으로 34 년의 구역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E : 50 세 여성으로 25 년의 구역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F : 85 세 여성으로 45 년의 구역 경험을 가지고 있다.

연구참여자 G : 63 세 여성으로 37 년의 구역 경험을 가지고 있다.

D.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가 경험한 경험세계의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기 위하여 현상학적 여러 방법 중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위하여 Colaizzi 의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Colaizzi 의 분석방법은 참여자들에 의해 기술된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도출하고 일반적인 의미로 구성한 후, 주제를 묶음으로써 연구참여자들의 체험에 대한 본질적인 구조를 구성하는 것이다."[131] 특히 Colaizzi 의 분석방법의 특징은 연구참여자 개개인의 속성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연구참여자 전체의 공통적인 특성을 도출해내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다. 본 연구는 개별 그룹원의 경험의 의미에 더하여 그룹원 전체의 집단적 경험을 광범위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에 적합한 Colaizzi 방법을 택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132] 첫째로, 연구참여자의 면접 녹음한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컴퓨터에 그대로 글로 옮겨 기록하고 기록한 자료(protocols)를 여러 번 반복하여 읽는다. 둘째로, 참여자의 의미 있는 진술(significant statement)을 도출한다. 셋째로, 의미 있는 진술을 주의 깊게 보면서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진술(general restatement)을 한다. 넷째로, 의미 있는 진술과 재진술로부터 구성된 의미(formulated

[131]이은아김외 et al, "교사-학생 관계 증진 훈련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초등상담연구*, vol. 14, no. 3 (2015), 342.

[132]Ibid.

meaning)를 끌어낸다. 다섯째로, 도출된 의미를 주제(themes), 주제모음(themeclusters)으로 범주화(category) 한다. 여섯째로, 선행단계에서 확인된 주제를 관심 있는 현상과 관련하여 공통적인 요소를 통합하고 명확하고 본질적인 최종적 진술을 한다.[133]

본 연구자는 Colaizzi 의 분석방법에 따라 자료를 분석하고 연구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에서 의미 있는 문장을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상적인 진술로 구성된 의미를 정리하였다. 구성된 의미로부터 주제를 찾은 후 다시 주제묶음으로 범주화하고 이를 통해 경험의 본질적인 구조를 기술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인터뷰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고 범주, 주제묶음, 주제를 도출하였다. 또한 범주화 한 내용을 다시 인터뷰와 비교하며 수정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자료 분석 결과, 2 개의 범주, 10 개의 주제묶음, 그리고 314 개의 구성된 의미가 나타났다. 주제 묶음과 주제는 〈표 1〉과 같다.

〈표 1〉 자료분석 결과 : 주제, 주제묶음 및 범주

범 주	주제묶음	주 제
A. 소그룹 안에서의 상호관계성의 특징	1. "다들 구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1. 구역모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못 느낌 2. 구역 모임에 대한 거부감 3. 비자발적 참여 4. 소그룹 형성의 어려움 5. 대표 기도의 부담감 6. 시간 정보의 불분명으로 어려움을 겪음

133Ibid., 342-44.

	2. “모르는 사람과 그룹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	1. 낯선 그룹원들과 새로운 관계를 경험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서먹함 2. 새로운 구역에 적응할 때까지 양쪽 구역 모임에 참여함 3. 구역 재편성으로 인해 그룹 안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
	3.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많이 부럽고 도전도 되고...”	1. 소그룹 안에서 리더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음 2. 리더의 열심과 섬김의 모습에 도전 받아 열심히 참여하게 됨
	4. “하여튼 우리 구역은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1. 구역모임에 재미를 느낌 2. 리더가 음식을 함께 나누는 식사 교제나 회식, 야외 활동을 중요시 3. 리더의 헌신과 희생으로 인한 그룹원들의 인식의 변화, 보답
	5. “시원하면서도 가까워 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	1. 어려운 삶의 문제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경험 2. 그룹원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됨 3. 그룹원들과 가까워짐, 유대, 공감대 형성과 감정 해소

B. 소그룹 안에서의 상호관계경험의 효과	1. “편안한 것도 있고 맘 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구역원들로 인해서 이해 받고 지지 받고 있는 편안한 느낌을 경험함 2. 소그룹 안에서 격려와 지지반응과 피드백이 이루어짐 3. 가정의 어려운 문제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고 기도 받음
	2. “가족 같고 챙기게 되고 뭔가 나눠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어요.”	1. 구역에 대한 소중함과 소속감을 느낌 2. 구역모임에 빠지는 것을 서운해하고 연락을 달라고 요청 3. 구역 모임에 대한 인식의 변화, 좋아하고 기다리게 됨 4. 서로 간에 자기 일처럼 전심으로 도와주고 사랑함 5. 서로 간에 챙기게 되고 베푸는 정을 느낌 6.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걱정하고 궁금해 함 7. 보통 1시간 30분 이상 서로 삶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교제를 가짐 8.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상호적인 조율로 찾아나감

	3. “서로가 교류되고 몰랐던 것도 배우고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니까 좋아요.”	1. 세대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 간에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경험 2. 구역모임을 통해 듣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함 3.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을 찾게 됨
	4. “하나님을 더 꼭 붙잡으려고 하고 신앙이 커진 것 같아요.”	1. 삶의 고난과 역경을 신앙으로 극복해 온 이야기와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음 2. 신앙의 고백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함 3.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짐
	5. “저를 많이 들여다 본 것 같아요.”	1.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고 성찰하게 됨 2. 건강이 회복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남

Chapter Ⅳ

연구 결과 및 해석 (Research Result and Interpretation)

인간은 누구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관계를 통해 깊은 인간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한다. 산업 정보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빠르게 요동치는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쁜 일상과 더불어 스마트폰으로 대변되는 Computer Mediate Communication (CMC) 관계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다. 그러나 CMC 관계는 익명성에서 서로 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에 좀처럼 깊은 신뢰감과 만족감을 느끼기가 어렵다. 깊은 신뢰 경험은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을 요구한다. 무수히 많은 상황과 여러 가지 삶의 조건이 빚어내는 환경의 변화들을 함께 겪어나가면서, 서로의 관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그 관계의 경험과 특징이 결정된다.

그런 의미에서 소그룹은 깊은 인간의 만남과 신뢰 관계를 경험을 하기에 좋은 구조를 가진다. 특히 교회 소그룹은 신앙 안에서의 만남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경험하기에 따라 보다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원활한 교회 소그룹을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룹 안에서 과연 어떤 관계의 경험을 했으며, 또 어떤 상호 관계 경험을 하고 있는가? 이러한 물음과 의도를 가지고 나타난 연구 결과를 생태 신학적 관점과 관계문화이론적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한다.

A. 소그룹 안에서의 상호 관계성의 특징

1. “다들... 구역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룹원들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 간에 만족할 만한 상호 관계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을 만한 환경적, 물리적, 잠재적 요인들 즉 그룹원들이 함께 공유한 경험이나 시간, 공간 등 여러 선행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소그룹의 중요 원리를 적용해 볼 때, 그룹원들의 ‘상호연결성의 원리’, 즉 그룹원들은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서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관계의 그물망을 형성하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134] 그러나 소그룹을 형성하는 초기에는 이러한 선행 조건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다음 아래의 참여자 G 의 인터뷰 내용처럼 그룹원들이 그룹 안에서 만족할 만한 관계를 경험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

> *H 권사님은 한 번도 구역 예배를 안 드렸지 K 권사님은 구역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S 집사님은 오신지 얼마 안됐지 그분도 구역예배에 대해서 잘 모르지 W 집사님은 젊으니 구역예배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잘 모르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135] *(참여자 G)*

참여자 G 의 인터뷰 내용처럼, 인터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초기의 소그룹 상호 관계 경험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소그룹 관계 형성에 있어서 어려움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타났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룹원들이 구역 모임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심지어 거부감까지 보이는 것, 비자발적

---

[134] 조현철, 5-6.
[135] 면담의 대화 내용은 이탈릭체로 표기하였다.

참여 자세, 소그룹 관계 형성의 어려움, 대표기도의 부담감, 모임 시간이나 장소 등 소그룹 정보의 불분명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소그룹 리더는 그룹원들이 구역예배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거나, 왜 모여야 하는지 관심조차 없거나 심지어 거부감을 가진 사람들을 그룹원으로 만날 때 좌절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예배 드리러 갔는데 물 한잔도 안 주는 거에요. 거기서 구역 예배를 드린다고 했으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집에 없는 거에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올 때까지 기다리다가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글쎄, 그 분도 괘씸했는지 차 한잔도 안주더라구요. 예배 드리고 나왔더니 함께 갔던 S 집사님이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람이 집에 오면 물이라도 줘야 되는데 물 한잔도 안 주네." 굉장히 불평을 하시더라구요. 구역 예배 모임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서 그랬어요. (참여자 G)*

이처럼 그룹원들이 소그룹에 대한 기대와 성격, 모임의 목적과 의도를 분명히 깨닫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점, 모임의 시간이나 장소 등의 불분명한 정보들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관계 경험을 초래하거나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본인은 전체 교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그룹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즉 교인들로 하여금 소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소그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만족할만한 소그룹 관계 경험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선행 과제가 된다고 볼 수 있다.

2. <u>"모르는 사람과 그룹을 다시 해야 되잖아요."</u>

교회 소그룹은 특성상 계속해서 분리와 통합 과정을 거듭하며 성장해나간다. 인터뷰 참가자들은 보통 25년 이상의 구역 소그룹 경험 중에서 세 네 번 정도의 분리와

통합 과정을 거쳤는데 인터뷰 분석 결과에 의하면, 소그룹 관계 경험 중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들 중 하나는 분리와 통합 과정 중에 일어났던 경험들이었다. 참가자들은 정들었던 소그룹 원들과의 이별과 새로운 소그룹 적응에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 등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분리와 통합에 적응하는 경험이 쉽지 않았다고 말한다.

> *처음 구역 예배는 엄청 열심히 드렸어요. 구역장 권사님이 딸처럼 대해주신 거에요. 거기서 드리다가 나중에는 구역이 나뉘어졌어요. 이사를 가니까 바꾸더라구요. 처음에 구역 바뀌고는 막 울었어요. 너무 서운해서요. 새로운 구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서로 알아가려고 하니까. 그쪽 구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그러니까 서먹서먹 했죠. 모르는 사람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참여자 G)*

인간은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존재일수록, 친밀한 유대감을 맺고 있던 사람일수록 이별을 경험함에 있어서 스트레스와 상실감을 겪는다. 특히 이별의 원인이 본인의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거나, 또는 물리적이고 일방적인 외부의 의도 때문이었다면 더더욱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기 쉽다. 교회 소그룹은 특성상 개개인의 사정이나 형편으로 인해서, 목회자의 목회 철학이나 의도 혹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들 때문에 때때로 소그룹 개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인 방법으로 재편성되고 통합되는 과정을 갖게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소그룹 리더나 그룹원들은 친밀한 유대 관계를 맺어왔던 사람들과 이별을 해야 하는 슬픔과 아쉬움을 경험하기도 하고 새로운 낯설고 서먹서먹한 관계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는 두려움에 직면하거나, 때로는 새로운 소그룹에 적응하지 못하고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아래의 J 집사 같은 경우는 새로운 그룹에 적응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간 케이스이다.

지금 모임은 잘 되는데 빠진 식구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연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J 집사를 자꾸 품고 싶구 그런데~ 이렇게 모이는 식구끼리만 자꾸 모이게 되니까~ J 집사는 출근을 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출근을 하기 전에는 저랑 B 권사님이랑 H 집사님이랑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잘 드렸거든요? 빠져도~ 아니면 저녁때라도 드리고 아니면 토요일이라도 날짜 바꿔서 드리고. 그런데 구역 편성이 바뀌면서 A 권사님이랑 구역이 되면서 부터는 잘 모르시잖아요. J 집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챙기는데 소홀하게 되고 구역예배 때 자꾸 이렇게 소외되고.. 이제는 구역예배에서는 떨어져 나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 아쉬워요. (참여자 E)

J 집사는 직장 출근으로 인하여 모임 참석이 용이하지 않는 형편에도 구역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가 구역이 일방적으로 재편성되면서 리더와 그룹원들이 일부 바뀌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그룹에 적응하지 못하고 말았다.

그렇게 어려우니까 너무 서운해서 두 번 구역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이쪽 구역에서 드리고 또 그쪽 구역에 적응할 때까지 그렇게 두 번 참석 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신랑이랑 둘이 저녁에 드렸어요. 이쪽 구역에서 드리고 저쪽에서 드릴 때는 제가 얘기 했어요. 전 구역장님이 엄마같이 잘해주시고 내가 못 잊어서 그곳에서도 드릴꺼라구요. 그랬더니 구역장 권사님이 그려~ 양쪽에서 하라고. 그냥 나 좋은 대로 하랴~.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고. 지금처럼 막 따지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는 제가 제일 젊으니까 권사님들이 나를 애기로 봤어요. 애기~ 그런데 겪어보니까 이 구역장 권사님도 너무 잘해주시는 거에요. 양쪽으로 하다가~ 이제 저쪽으로 갈께요. 하고 갔지 (웃음). (참여자 G)

참여자 G 같은 경우에는 '이사'라는 어쩔 수 없는 개인적 상황과 구역예배모임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성원이 될 수 있다는 교회의 방침이 맞물려 새로운 구역에 재편성되어야 하는 경우에 속했다. 참여자 G는 이전 소그룹 사람들과의 이별 스트레스와 더불어 새로운 낯선 사람들과의 관계에 자신을 노출시켜야 하는 두려움과 부담감을 함께 겪어야 했는데, 이러한 관계 적응의 문제들을 새로운 구역에 적응할 때까지 양쪽 구역 모임에 모두 참석하는 방법으로 풀어나갔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참여자

G는 덧붙여 말하기를, 소그룹 리더나 그룹원들에게 이러한 자신의 어려운 감정들이 허용되거나 인정받고 또는 지지 받는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J 집사나 참여자 G의 경우와 같이, 새로운 소그룹으로의 재편성 경험은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새로운 공간적, 관계적, 시간적 체험을 하는 낯선 경험일 것이다. 그러므로 분리와 통합 과정 경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공감과 격려의 지지적 상호 작용은 낯선 경험들 속에서도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갖게 해주고, 긍정적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힘을 제공해주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생태신학적 관점에서 보면, 인간의 관계는 그 존재 자체로 본질적 가치를 지니는데, 이러한 본질적 존재 가치가 기계론적 세계관의 영향으로 도구화 되어지고 수단화 되어질 때 상호관계는 그 자체의 신성함과 생명력이 제거되고 탈성화(脫聖化) 되고 대상화 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136] 즉 소그룹 그 자체나,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 존재 자체로 본질적 가치의 고귀함이 있는데 이러한 고귀함이 무시 되어지고, 그 존재가 단지 목회자나 소그룹 리더의 교회 성장 도구의 한 방편화로 전락하게 될 때, 그러한 소그룹 안에서의 관계 경험은 친밀함을 형성하기 어렵거나 생명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인은 소그룹의 분리와 통합 과정은 목회자의 일방적인 의도에서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분리와 통합의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도 선행 작업이나 교육을 통하여 소그룹이나 그룹원들 각자가 처한 처지와 상황들이 세심하게 배려되고 그룹원들의 이해와 지지와 설득력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136] 조현철, 4.

그룹원들이 서로 간에 이별과 새로운 관계 경험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격려, 지지적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하는 바이다.

3. <u>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많이 부럽고 도전도 되고...”</u>

> *S 권사님이 저 큰 애 가졌을 때도 기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권사님이 맨 처음에 본을 보여 주신 게 구역예배는 꼭 드려야 하고~ 그때 그룹원들이 저는 막 임신한 새댁이고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형편이 어렵고 아이들도 있는 K 집사님... 그런데도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데도 권사님이 저를 잘 데리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힘든 데도 열심히 좋아 다녔던 것 같아요. 열심히~ 그러면서 구역예배를 처음 배운 것 같아요. (참여자 E)*

> *편하게 얘기해주시는 것 같구~ 감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권사님 이렇게 교회 봉사하기는 거 보면 많이 부럽고 도전도 되고.... 신앙의 영향을 많이 줬지요. (참여자 G)*

인터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소그룹 참여자들이 만족할만한 소그룹 경험을 하는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소그룹 리더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꼽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소그룹 경험 초기에 그들은 구역예배모임을 왜 드려야 하는지,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모임이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 잘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태도와 거부감 마저 들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소그룹 리더의 열정과 헌신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 *그러다가 이사를 갔는데 그때 우리 구역장이 P 집사였어요. 그런데 P 집사가 그 젊은 사람이 셋째를 가져서 임신을 하면서 권사님 뭐~ 이러면서 예배도 드리고 전화도 해주고 이러는 거야. 그 젊은 사람이 딸 같은 집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이렇게~ 나는 시간적 여유도 많고 이런 사람이 예배를 안 본다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젊은 P 집사님 내외가 그렇게 구역을 열심히 섬기는 것을 보고 아~ 아니다. 내가 그래도 연장자인데 젊은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자. 뭐~ 내가 특별히 뭐는 못해도 나오라는 것은 열심히 나와주자~ (웃음) 그러면서 구역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어요. (참여자 A)*

소그룹 참여자들은 소그룹 리더의 관심과 지지와 사랑을 받으면서 또 그들이 구역 예배 모임을 열정과 헌신으로 섬기시는 모습에 도전을 받으면서 서서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소그룹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소그룹을 활성화시키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상호 관계성을 경험하는데 있어서 소그룹의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관계문화이론에 따르면, 개인에게 관계적 인식능력이 있을 때 인간관계를 상호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향상된다고 주장한다.[137] 주디스 조던은 관계적 인식 능력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아는 능력, 다른 사람을 파악하는 능력,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어떤 종류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는 파악하는 능력, 그리고 관계 속에서 자신의 힘이 어떻게 상대방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이라고 말한다.[138]

본인은 소그룹 개개인이 관계 경험에 있어서 서로 간에 만족할만한 상호 관계 경험으로 변화,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관계적 인식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소그룹 리더들은 그룹원들 개개인의 상황과 사람의 특성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므로, 이러한 관계적 인식 능력은 리더의 필수 능력과 자질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룹원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변화의 동력이 되고 있는 소그룹 리더들에게 전문적인 소그룹 리더 훈련을 실시하여, 관계적 인식 능력, 공감과 지지능력 등 리더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자질 등을 계속해서 계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리라 본다.

---

137 권진숙, 70.

138 Judith V.Jorden,"The Meaning of Mutuality,"in *Women's Growth in Connection*, eds. Judith V Jorden *et el.* (New York: Guilford Press, 1991), 54. Cited in 권진숙, 70-71.

4. "하여튼 우리 구역은 재미있어요. 그러다 보면 서로..."

그게 하여튼 우리나라는 신명 문화이기 때문에 즐거워야 해요. 그리고 신나야 되요. 그래야만~ 하여튼 저희는 모르겠어요 구역 예배 만큼은 열심히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건 다 안 해도 구역장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웃음) 우리 구역은 먹으면서도 즐거운데 야외도 잘 나가요. 멀리도 잘 나가요. (참여자 G)

D권사님은 권사님은 처음에는 그런 얘기 전혀 안 했어요. 우린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구역예배를 드리고 나서 식당 테이블에서 음식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뭐 어쨌어 저쨌어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많이 힘드셨구나... (참여자 B)

밥을 같이 먹어야지 사랑이 깊어져요. 그런 게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참여자 G)

소그룹의 친밀한 상호 관계 경험을 촉진시키는 또 다른 요인으로 회식이나 식사 교제, 야유회, 교회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생태적, 문화적 요소가 활용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소그룹을 잘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이러한 문화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특히 음식을 먹고 나누는 식사 교제는 리더 스스로 물질적 희생을 감수할 만큼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였다.

처음 모임을 할 때는 어려웠어요. 그런데 계속 내가 밥을 사주고~ 처음에는 구역 식구들이 부담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가 살 테니까 당신들은 사주지 말라. 내가 할 때만 산다고 하고. 그리고는 안 사주면 내가 곧바로 사고 했는데~ 그 인식이 바뀐 게 일년도 안되서 바뀌었어요. 한참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동조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H 집사님이 그런 소리 하더라 구요. 우리 그러지 말고 다 먹자. 내 껀 내가 먹는 거다. 사실은~ 그러니까 돈 내고 먹자. 그래 가지고 먹기 시작한 거지요~ 이 집에서 사주고 권사님이 사주고 그리고 나 사주고 서로 낸다고 인식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또 싼 거 먹으러 가자고 하면 얼마나 산다고 잘 먹자고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야외로도 잘 나가고~ 다음 주에는 국화축제 보러 가려 구요. 이렇게 자꾸 놀러도 같이 가구~ 이젠 하나가 되어서 오히려 안 드리면 서운해 해요. 구역이 잘되려면 누군가 하나는 희생을 해야 한다는 거~ 계속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그래서 구역장 구역강사는 희생을 할 각오를 해야 되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구역식구들이 더 많이 줘요. 요즘에는 구역식구들이 더 잘해줘요. 그런 게 사랑을 나누는 거지요. 그니까 그렇게 먹고 같이 뭐야~자기 속에 있는 말하고 어려운 걸 말하고

그러니까 서로가 기도도 해주고. 나중에는 마음 속에 있는 말도 다하고 자기네 집에 어려운 문제도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된 거죠. 사실은~ 같이 먹고 같이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되는 거에요. (참여자 G)

생태학자 토마스 베리는 자연세계는 객체일 뿐 아니라 주체이며, 우리 존재의 모성적 원천으로서 신체적, 정서적, 미적, 윤리적, 종교적 존재에 생명을 주는 자양분이라고 말한다.[139] 자연세계는 신성한 공동체로서 우리는 거기에 속해 있으며,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세계로부터 유리되는 것은 우리를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의 결핍을 의미한다는 것이다.[140] 그런데 과학 기술 문명 시대에 접어들면서 인류는 자연세계와 누리던 관계, 즉 내적 통교, 친밀감, 경외 같은 감성적 영역에서의 친교를 상실하면서 점점 다른 존재와의 친밀감이 약화되었고, 주위의 모든 존재들과 교류할 수 있는 언어를 잃어버리는 자폐증적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말한다.[141] 그리고 자연 안에 내재적으로 현존하는 신에 대한 감수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원인으로 하나님을 지나치게 초월적 존재로 인식하는 기독교 신학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고 말한다.[142]

인터뷰 분석 결과를 보면, 생태신학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생태적, 문화적 관계 경험이 그룹원들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친밀함과 유대감 형성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태 신학과 관계문화이론적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신학적 실천적 패러다임의 모색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 결과 소그룹 참여자들은 생태적, 문화적 관계 경험으로 친밀한 관계 경험을 형성하고 이를 토

---

[139]심종혁, 4.
[140] Ibid.
[141]Thomas Berry, *The Dream of the Earth*, 16.
[142]심종혁, 4-5.

대로 삶의 이야기 나눔을 통하여 신앙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의 영향으로 말씀 나눔과 삶의 나눔의 분리, 예배 시간과 나눔의 시간의 분리, 모임 시간과 야외 놀이 등으로 말씀과 삶, 생태의 영역을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통합하고 보다 큰 틀을 제공할 수 있는 신학적 실천적 패러다임의 모색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바이다.

5. "시원하면서도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인터뷰 참여자들은 소그룹의 친밀하고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통해서 안전감을 느꼈으며, 일상에서 쉽게 꺼내지 못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는 장이 되었노라고 말한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자신만의 이야기가 아닌, 그룹원들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 수용되는 경험을 하였다.

오빠가 생각나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 얘기라 너무 눈물이나... (참여자 C)

일상 생활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때로는 자녀들 흉도 봐요. 아우~ 쟤 때문에 어쩌구 저쩌구 (웃음) 자식들 이라고 다 예뻐요? 미울 때도 있지. 싸울 때도 있어요. 크게 속상한 거는 아닌데 자잘한 일들~ 섭섭하게 할 때 내가 그래 가지고 그랬다~ 이런 얘기들~(웃음) 그러면 오늘은 자식들 성토하는 날이네~ 이러면서 다 그러면서 깔깔깔깔 웃지요~ 뭐 (웃음) 자식들 하는 게 다 똑같으니까~ 다 사는 게 그래요.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렇게 구역 식구들한테 자녀 흉도 보고 허물없이 하니까 다 그런 게 좋지요. 뭐~ 흉거리는 아니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라는데 안 일어나가지고 뭐~ 어쨌다 저쨌다 뭘 어떻게 했는데 우리 아이가요~ 말대꾸를 이렇게 했다~ 그때 섭섭했어요. 막 섭섭 하더라구~ 이렇게요. 그러면 또 아~ 나도 그랬어 나두~ 뭐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어느 날은 진짜 다 얘기가 나오는 거야~ 다 얘기가 나와~ (웃음) (참여자 A)

소그룹 안에서 친밀하고 깊은 신뢰 관계를 맺은 그룹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마 하기 힘들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신을 노출시키는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꼈으며,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대 형성,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서 서로 간에 마음의 거리를 더 가깝게 느끼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감된 감정을 유머와 위트로 풍자화 시키며 웃음의 해학을 즐기기도 하였다.

>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좋은 거는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인간 관계는 구석 구석 다 아는 사람 보는 게 제일 편해요. 모르는 사람 만나면 자꾸 눈치 보게 되고 뭘 주의해야 하나 생각하게 되고~ (참여자 D)*

> *속에 있는 얘기들을 다 하고 그러면 친해졌다는 느낌~ 시원하면서도 가까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서로 속 얘기를 할 정도면 어쨌든 가까워진 거잖아요. (참여자 B)*

이처럼 소그룹 안에서 그룹원들이 서로 간에 만족할 만한 경험을 하게 되면 친밀함과 안전감을 느끼며 속 깊은 이야기들을 하게 되고 상호성(Mutuality)이 깊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관계문화이론에 의하면, 상호성은 친밀감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같은 감정을 갖는 것이다.[143] 즉 상호적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두 사람이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서로가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방이 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서로가 소통할 수 있고,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로의 감정 상태를 반응해 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144]

---

[143]Judith V.Jorden,"The Meaning of Mutuality,"in *Women's Growth in Connection*, eds. Judith V Jorden *et el.* (New York: Guilford Press, 1991), 81-96. Cited in 권진숙, 88-9.

[144]Ibid.

B. 소그룹 안에서의 상호 관계성의 효과

6. <u>“편안한 것도 있고 맘 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u>

인터뷰 분석 결과, 소그룹 안에서 상호 관계성이 잘 형성되면 여러 가지 효과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그룹원들로 인하여 이해 받고 지지 받고 있는 편안한 느낌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모임 안에서 많은 격려와 지지 반응과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또한 서로의 어려운 가정 문제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 *예전에는 집에서 다 해 먹구~. 하루를 거의 그렇게 보냈죠. 그게 제일 많이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그나마 딴 짓 안하고~(웃음) 버틸 힘이 되지 않았나.. 나름 힘들다면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결혼 하면서....어떻게 이... (침묵) 이런 사람도 있구나... 제가 맹해서 그런지 몰라도... 말만 서로 통하면 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힘들었는데... 그나마 잊고 살구 기도하면서 지낼 수 있었던 게... 힘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좇아 다녔는지도 몰라요.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게~ 권사님들한테 제가 기도도 받고 기도하고... 시댁은 너무 복잡하니까 가면 너무 차이가 많고 친정은 또 너무 편안하니까 엄마한테 힘든 얘기 못하고~ 또 말씀 드리면 걱정하시잖아요. 눈물부터 흘리시니까 말 못하고... 그런데 기도할 수 있고 속내는 다 터놓지 못해도 권사님들은 이제 말은 안해도 저희 집안 사정 복잡한 거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다 아시니까 편안한 마음도 있고 맘 적으로 의지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E)*

참여자 E의 경우에도, 소그룹에서의 관계 경험이 자신의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버틸 힘이 되었노라고 말한다. 그리고 서로의 상황과 처지와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역 식구들이 해주는 기도, 추상적인 기도가 아닌 구체적이고 진심으로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주는 기도를 통해서 큰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권진숙은 상호성(Mutuality)은 사람들에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제공한다고 말한다.[145] 그리고 이런 과정들이 일반적인 혼자만의 과정이 아니라 주체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발생하는 인간의 삶의 본질이라고 정의한다.[146] 그렇기 때문에 상호성은 다른 사람의 주관적인 경험과 전인성을 존중하며 또한 상대방에 대한 깊은 걱정과 공감을 할 때 생겨나며 이럴 때 상대방은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다.[147]

소그룹 현장 촬영 영상을 분석해보면, 그룹원들의 대화 속에서 상호성(Mutuality)을 드러내는 지지와 격려, 수용적인 피드백들이 계속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다.

> *참여자 C : 나이 많이 먹어서 간신히 학교에 갔는데 한번은~ 60점 밑으로는 다 손바닥을 맞고 그랬는데~ 국어 시험도 60점 아래로 손바닥을 때리겠대.. 아휴~ 그랬는데 처음 보는 국어시험이니까 나도 그걸 할 줄을 알어? 어디서 어떻게 시험문제가 나올지 이런 걸 모르자나~ 그니까 봤는데 47점밖에 못 맞은거야. 여자들 중에서 나 혼자 맞았어. 하루 종일 그냥 거기서 울다가 잠이 들어서 잤어. 그런데 나이 먹은 애가 그렇게 있으니까 깨우지도 않더라구.. 그래서 나중에 집으로 왔는데~ 교복도 없어서 내가 지내던 집에 있는 이대 졸업한~ 그이 교복을 입고서는 다녔어. (중략) 그래서 오빠한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편지를 썼어. 오빠가 이렇게까지 해주셨는데 이렇게 자꾸 시험을 봐서 떨어져서 죄송하다고.. 그랬더니 편지가 두 장이 그냥 빡빡하게 왔어.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공부를 시켰다면 공부를 시켰다면 미안하다 소리를 안 할 텐데 내가 시켰기 때문에 동생이 미안하단 소리를 하는 거라고~ 나는 그게 서운하다고~ 그러면서 아버지가 시켜야 될 것을 못 시켰으니까 오빠가 시킬 의무가 있어서 나는 내 의무를 수행했을 따름이라고~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하지 말라고.... 이걸 보니까 진짜 눈물이 나올 꺼같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 얘기라 너무 눈물이 나와....*
> *참여자 F : 아니~ C 권사님 말을 듣고 보니까 참 소설 같은 얘기네요.*
> *참여자 C : 소설을~ 제가 글을 쓸 줄 알으면...*
> *참여자 F : 그리고 정말 존경이 가네요. 난 여태 몰랐어요.*
> *참여자 A : 말씀을 안하셔서~ (다같이 웃음~)*

---

[145]권진숙, 89.
[146]Ibid.
[147]Ibid.

참여자 F : 참~ 이 자리가 좋은 자리야~
참여자 C : 내가 너무 내 얘기를 많이 해서...
참여자 E : (참여자 C의 손을 잡으면서) 아니, 아니~ 너무 좋았어요.
참여자 B : (참여자 C의 어깨를 터치하면서) 몰랐던 얘기를 해주셔서~
참여자 C : 난 오래간만에 오빠 생각을 했네.... (웃음) (소그룹 촬영 분석)

위의 내용을 보면 참여자 C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나자, F는 “참 소설 같은 얘기네요. 그리고 정말 존경이 가네요. 난 여태 몰랐어요.”라고 말하면서 C의 이야기에 지지와 공감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좋은 자리야.”라고 말하며 모임에 대한 만족과 긍정의 마음을 드러낸다. 또한 참여자 C가 그룹원들에게 자신의 이야기에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표현하자 참여자 E는 “아니, 아니~ 너무 좋았어요.”라고 말하면서 C의 손을 잡아주며 신체적인 접촉으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참여자 B 역시 힘든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말해준 것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과 위로의 마음을 “몰랐던 애기를 해주셔서~”라는 말과 함께 C의 어깨를 터치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다음은 구역장인 참여자 A의 구역예배모임 중에 드려졌던 기도 중 일부 내용이다. 기도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그룹원들이 어떤 삶의 처지와 형편에 놓여있는지 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기도의 내용 가운데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이 자리에 C 권사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많은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께서 아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을 지켜주신 것 같이 이제 남은 삶도 건강 지켜 주시어서 권사님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상달될 수 있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집사님에게도 평안한 잠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두 분의 기도가 언제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형제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특히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모두 일이 주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의 사업마다 축복하

여 주시옵소서. 특히 멀리간 아드님이 계십니다. 그 가정도 믿음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덥고 습한 나라에 항상 건강 지키고 잘 충성되게 직장 생활 잘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잘 마치고 귀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하옵소서. (참여자 A)

7. "가족 같고 챙기게 되고 뭔가 나눠주고 싶고 품어주고 싶어요."

구역을 참여하게 되니까 음~ 이렇게 가족 같고 챙기게 되고 뭔가 나눠주고 싶고 또 아랫사람한테는 품어주고 싶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고~ 그게 묘하더라구요~ 구역이 되면 구역식구들이 소중한 거에요. 일단 구역이 편성되서 구역이 딱 정해지면 이 구역이 더 소중하고 애착이 가고... (참여자 A)

친밀한 상호 관계 경험은 그룹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을 증대시켜주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룹원들 상호 관계 사이에 다이나믹한 관계의 역동성이 생겨나고, 서로가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주고 받는다. 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친밀한 상호 관계성의 효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즉 구역에 대한 소중함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구역모임에 빠지는 것을 서운해하고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구역 모임에 대한 그룹원들의 인식의 변화, 구역예배를 좋아하고 기다리게 됨, 서로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전심으로 도와주고 사랑을 느낌,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걱정하고 궁금해하며 관심이 깊어짐, 서로 간에 챙기게 되고 베푸는 정을 느낌, 보통 1시간 30분 이상 서로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교제를 가짐,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서로 간에 상호적인 역할과 조율로 찾아 나가는 등 소그룹 활성화와 관계 경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은 소그룹의 본질이 상호 존중과 상호 관계성의 경험에 있으며, 소그룹의 본질이 살아날 때 스스로 자체적으로 놀라운 자생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인 면접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역에 참여함으로써 주고 받고 정~ 교감을 갖는 걸 정말 좋아하고 그러니까 잘 모여지는 것 같아요 특별한 사정 없으면 주로 우린~(웃음) 앉아서 덕담 나누는 걸로 시간이 두어 시간 가요~ 얘기로 얘기로 막~ 글쎄 누굴 못한다 흉보는 얘기도 없고 한 두 살아온 얘기~ 지냈던 얘기~ 지난 주 아팠어 병원에 갔어 아우 그러셨어요~ 서로 염려해주는 거 그럴 때 서로 다 좋은 거 같아요. 관심 가져 주는 거~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구역의 장점은 구역 식구한테 관심 가져주는 거~ 그게 굉장히 구역식구의 모임의 활력소가 되지 않나... (참여자 A)

처음에는 다 사실 구역예배 오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약속이 있어서 서울을 가더라도 구역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에요. 또 보람 있는 것은 M 집사님 같은 분은 구역예배 드리려고 더 일찍 오시는 거에요. 이번 주도 우리가 목요일 날 드리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 드리자구~ 자기가 수요일날 오시니까 구역예배 때문에 더 빨리 오시는 거에요. (참여자 G)

8. “<u>서로가 교류되고 몰랐던 것도 배우고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니까 좋아요.</u>

친밀한 상호 경험이 형성되면서 그룹원들에게 일어난 또다른 변화는 세대간의 소통과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 간에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구역 모험임을 통해 듣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을 찾게 되었노라고 말한다.

우리 권사님들도 살아온 믿음으로 또 살아온 본이 되는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렇게 믿는 거구나~ 많이 느끼고 하는 거죠~ 또 살아온 경험들도 다 다르니까 서로 교제하는 시간에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그러셨다 공감도 되고 좋은 것 같아요. (참여자 A)

좀 창피한 이야기긴 한데요~ 제가 6학년 때부터 엄마랑 떨어져 살았어요. 그 이유는 이제 시골이라 학교가 없었기 때문에 외할머니 댁에서 자랐는데... 할머니가 다 해주는 밥만 받아 먹고 살림은 전혀 모르고~ 엄마가 있으면 가르쳐주셨을 텐데... 대학 졸업할 때까지도 할머니가 해주는 밥 먹고 그냥 그 자리에서 숟가락 놓으면 할머니가 다 치워주시고 그랬거든요. 그러고 서울 가서는 자취 생활이니까 우리 입맛에는 맞는 거 그런 간단한 거만 해 먹고~전혀 살림을 몰랐는데... 권사님들 따라 다니면서 교회 식당 보면서 그러면서 음식을 배운 것

같아요. K 권사님도 미역국 끓일 때 어떤 때는 고기 갈은 미역국 또 어떤 때는 고깃덩어리를 큰 거 보여 주시면서 이거는 누구를 위한 미역국이구 이거는 누구를 위한 미역국~ 저는 그냥 생각 없이 끓였는데 누구를 위해서는 이렇게 큰 고기를 넣고 누구를 위해서는 갈은 고기 넣고 다 맞춰 주시더라구요.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살림도 다 권사님들 한테서 배운 것 같아요. 좋아 다니면서 밥 얻어먹으면서 또 저희 집에서 반찬하구 그럴려면 신경써서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참여자 E)

특히 오늘날은 급변하는 사회 속에 전통적인 도적적 가치관의 붕괴와 혼란과 더불어 가족 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노인의 지위는 점점 더 낮아지고 소외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런데 문제는 노인들은 보수적인 태도를 계속 지키며 가족과 사회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려는 반면, 젊은 세대들은 과거의 전통사상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임으로써 세대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다.[148] 그러므로 노인들은 여러 면에서 정서적인 외로움을 경험하기 쉽다. 노년기에는 퇴직, 배우자와 친구의 상실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관계망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며, 은퇴 후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을 대신할 만한 여가나 집단 활동이 발달되어 있지 않아서 은퇴가 곧 사회활동으로부터 분리되는 계기로 작용하여 사회적 고립감을 크게 경험하게 하고 있다.[149]

우리한테는 젊은 사람들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모임 아니면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우리를 나이로 보니까 어려워하고 안 들어가~ 우리도 바깥에서 문화교실센타 라는가 이런 데서 배우고 싶은 것도 연로한 층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배우고 싶어도 굉장히 연로해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일반 교양 프로도 참 많아서 참여하고 싶은 게 많이 있어도~ (참여자 A)

따라서 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노인들의 정서적인 외로움을 줄여줄 수 있는 사회

---

[148] 임영식,"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Ph.D. diss.,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2001), 4.

[149] 김미혜 and 서혜경, *노인복지실천* (서울: 동인, 2002), 56.

적 안전망과 지지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음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관계 지향적 교회 소그룹이 그 중요한 문제 해결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 *솔직히 딸 같은~ 또 저 연로하신 분들은 손녀 같은 집사님들도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 그렇게 하니까 그 자체로 우리가 20대와 같이 교감했다 하면 20대에 대해서 알게 되고 30대의 그 생활 모르는 걸 알게 되고 그러니깐 젊은 층한테 배우는 거~ 젊은 사람들은 우리한테 배우는 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또 그걸로 인해서 서로가 교류되고 몰랐던 것도 배우고 그런 게 많이 이루어지니까 좋아요.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아날로그 시대니까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배우고 그런 점이 구역예배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지니까 좋아요. 구역 예배는 정말 드릴 수 있다면 정말 많이들 참여해서 같이들 공유하면 좋은 거구나 느끼고...(참여자 A)*

>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끼리 해야 잘된다고 생각하실 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그니까 젊은 사람들도 배워야 한다는 거지. 젊은 사람이 나이 먹은 사람한테 배워야 한다는 거지요. 사실은~ 우리 구역은 젊은 H 집사님이 굉장히 좋아해요. 오늘도 일하러 간다는데 구역 예배 드리고 갔어요. 우리가 좀 잘 못하면 M 집사님이 컨트롤 해주시고. 그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사실은~모이는 게 희희덕 거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삶의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어른들 한테 배워야 하지요. 사실은~ 구역원이 이렇게 섞어져 있어야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참여자 G)*

9. <u>하나님을 더 꼭 붙잡으려고 하고 신앙이 커진 것 같아요.”</u>

> *구역에 대해서 변화된 것이 있다면 서로 간증을 하잖아요. 간증을 통해서 많이 느끼면서 아~ 이런 이런 부분에서 기도가 많이 약했구나 느끼고 또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참여자A)*

> *구역모임을 하면서 가장 만족한 경험이 있다면 신앙적으로 많이 은혜 받고 저도 신앙이 쌓여지니까 하나님을 더 꼭 붙잡으려고 하고~ 신앙이 커진 것 같아요. 주일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 보다는 구역 예배를 통해서도 구역 식구들이랑 많이 얘기하잖아요. 삶의 얘기를~ 은혜 받은 얘기들을~ 도전도 많이 받아요.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가 있으세요 물으면 우리 집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구역예배 드릴 때 통성 기도 해줄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 좋아하셔요. 그러면 남편에게도 얘기 하신데요~ 오늘 우리 구역식구들이 와서*

기도해 줬다구~ 그러면 좋아하신대요. 연세 드신 분들이~ (참여자 B)

위의 인터뷰 내용처럼, 참여자들은 소그룹 안에서 그룹원들과 친밀한 상호 관계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깊고도 풍성한 삶의 이야기들이 나눠지게 되었고 삶의 고난과 역경을 신앙으로 극복해 온 이야기와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고백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과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한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 간에 친밀한 상호 경험을 하는 가운데 서로의 삶의 이야기와 간증들이 충분히 고백되고 나누어질 때, 더욱 생생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신앙과 변화의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관계문화이론 가운데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는 바로 공감(Empathy)이다. 권진숙은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일시적인 심리적 상태를 함께 경험하고 이해하는 내적인 경험"이라고 말한다.[150] 이는 자기 자신의 경험을 유지하면서도 상대방과 함께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고도의 복합적인 능력이며, 공감능력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의 경험을 자기도 보고 느낀다는 것이다. 따라서 서로간에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상호관계성 안에 모든 사람이 공감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이다.[151] 이처럼 소그룹 안에서 그룹원들이 친밀하고 만족할만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 서로 간에 깊은 공감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관계들이 서로 간에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150] 권진숙, 79.

[151] Ibid.79-88.

10. "저를 많이 들여다 본 것 같아요."

참여자들은 친밀한 상호 경험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보고 성찰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건강이 회복되기도 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기도 했다는 결과를 보고 하였다.

제가 진짜 못된 게요..... 올 해 느꼈어요. 정말 착한 척 하구~ 저도 속고 살았던 것아요. 애들 아빠나 애들 앞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드러났었는데~ 교회에서나 저 자신한테도 애들 아빠 탓이구 애들 탓이구 00이가 너무 억세서 그렇고 00이 저게 너무 그냥 고집이 세서 그렇고 그렇게 핑계만 댔었는데~ 올 해 저를 많이 들여다 본 것 같아요. 구역모임도 하고 제자반 하고 리더반 하고 소그룹 성경 공부하면서.... 저는 꼭꼭 감춰두고 다들 아시는데~ 얘기를 안 했어요.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이겨낼 수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무너질 자신 있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올 해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저도 모르게 저를 내보인 거에요… (참여자 E)

우리 구역식구들은 굉장히 서로를 사랑해요. W 권사님이 아팠는데 세 시간 이상 돌아다니면서 병원을 모시고 다니고 그랬어요. 식구들 아프고 뭐 하고 그러면 굉장히 사랑으로~ 하여튼 그 권사님 성격이 바뀌었어요. 구역예배 드리기 전에는 첨에는 놀러 가도 돈을 안 가지고 왔어요. 뭘 살 줄도 모르고~ 마음은 너무 착해요. 맨 처음 그 집에 구역 예배를 드리려고 갔어요. 구역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보니까 몸이 아파서 뭐를 못하는 거에요. 아무것도~ 움직이질 못하는 거에요. 몸이 약해서. 음식도 요만큼 먹고. 속에서 받지를 않는 거에요. 친구도 별로 없고~ 돈은 많은데 쓸 줄을 몰라요. 우리 같으면 있는 데로 다 쓰는데 쓸 줄을 몰라요. 그래서 M 집사님이 어르신이 자꾸 가르쳤어요. 옷도 잘 입어라 맛있는 것도 사먹어라~ 이제는 잘 사줘요. 자기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할 줄을 몰랐던 거에요.
자꾸 그러다 보니까 성품이 바뀌었어요. 우리 있는 거 같이 먹고 남는 거 싸 갖고 가구~ 구역 리더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경험이 있다면 W 권사님이 건강을 되찾고 성격도 바뀌어진 거에요. (참여자 G)

위의 면접 내용을 분석해 보면, 소그룹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서로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반성적 사고와 성찰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룹원들 상호간의 사랑과 관심으로 그룹원의 건강이 회복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관계지향적 교회 소그룹은 서로 간의 상호관계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고 구체화 되는 자리요, 파괴되고 소외된 생명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재창조되는 하나님의 활동의 자리라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지금까지 인터뷰와 구역모임 동영상 촬영 자료를 토대로 도출된 내용들을 가지고 생태신학적 관점과 관계문화이론적 관점에서 이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Chapter V

결론 및 제언 (Conclusion)

본 논문은 교회 소그룹 목회에 대한 연구이다. 특히, 본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소그룹 목회 연구에 있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데, 그것은 무엇보다도 소그룹원들이 그룹의 관계 안에서 서로 간에 상호성과 상호 존중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관계지향적 소그룹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인은 왜 교회 소그룹은 관계지향적이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논지를 밝히는 것으로 논문을 전개하였다.

본인은 논문을 전개함에 있어서 두 가지 큰 틀을 그 근거로 사용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관계지향적 소그룹의 개념을 생태신학과 관계문화이론적 관점에서 찾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관계에 대한 개념이다. 관계문화이론에서는 “성장을 촉진시켜주는 관계”의 의미를 더 강조하기 위해 상호 관계에 의미를 두고 있다. 즉 서로 관계를 가질 때에 만남에 조화를 이루고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긍정적인 기분을 가지고 관계를 시작하고 유지하려는 태도, 즉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상호 관계성, 상호성에 대한 개념이다. 관계문화이론에서는 상호성이란 상호적으로 서로의 감정을 주고받는 것이라고 말한다. 정서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에게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방을 수용, 개방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서로의 감정 상태를 반응해줄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한다. 셋째, 소그룹에 대한 개념이다. 생태학자 토마스 베리는 모든 우주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의

미를 생명나무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다. 즉, 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 잎 등이 함께 이루는 총체인데 각각 서로 다른 고유한 기능하면서도 서로 유기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면서 생명력을 유지한다. 이러한 생명나무 상징이 의미하는 바는 우주라는 유기체 안에서 구성하는 모든 개체들이 서로 긴밀한 관계를 이루고 협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소그룹을 이해해보자면, 그 존재 자체로 우주와 연결되어 있는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소그룹은 그룹원들을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으며, 하나 하나가 다 주체이며 한 몸으로 유기적 연결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만물은 서로 연관되어 있고 의존하고 있다는 상호의존성의 원리와 아무리 미비한 존재라고 그 존재 자체는 본질적 가치를 지니고 있고,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포괄성의 원리에 기초한 생태적 세계관은 관계 지향적 소그룹의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본인이 논문을 전개하는 또 하나의 근거 틀은 이 논문의 독창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논문이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모임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 소그룹의 한 사례를 질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서 소그룹 목회 현장을 분석하고 연구하였다는 점이다. 본인은 과연 한국 교회 교인들은 소그룹 안에서 과연 서로 간에 만족할만한 상호관계경험을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 이유와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토대로 본인이 사역하고 있는 북문교회 구역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그룹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또 실제 사례를 비디오로 동영상 촬영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과 비디오 촬영 내용을 컴퓨터에 그대

로 글로 적어서 기록하고 반복하여 읽으면서 참여자들의 경험을 최대한 잘 드러낸 의미 있는 진술을 찾아내었고, 그 결과 2개의 주제와 10개의 주제묶음이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본인은 나타난 자료분석결과를 토대로 생태신학과 관계문화이론적 관점에서 그 결과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것으로 논문의 논지를 전개하였다. 도출해 낸 2개의 주제는 크게 소그룹 안에서의 상호관계경험의 특징과 효과이다.

먼저 상호관계경험의 특징을 분석한 결과 내용을 몇 가지를 살펴보면, 상호 관계성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서로 간에 영향을 주고 받을만한 시간이나 공간 등 여러 선행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소그룹을 형성하는 초기에는 이러한 선행 조건들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소그룹이 분리, 재편성되는 과정이 그룹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그룹원들의 정서적 지지와 격려반응은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새롭고 낯선 환경에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룹원들과의 상호관계 경험이 적극적인 소그룹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리더와의 관계경험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밀한 상호 관계 경험을 촉진시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으로 식사나, 야유회, 교회 행사 참여 등 다양한 생태적, 문화적 요소가 적극 활용되고 있다는 점등이다.

이러한 소그룹 안에서의 상호 관계성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시사점과 함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교인들과 소그룹 리더들을 위한 소그룹 교육 및 정서적인 지지와 더불어 전문적인 훈련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 결과 소그룹 참여자들은

소그룹 경험에 있어서 초기 경험이나 분리 및 재통합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교인들을 소그룹을 대상으로 소그룹 교육을 실시하여 소그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소그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되리라 생각한다. 또한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로는 소그룹 리더와의 긍정적인 관계 경험을 그 원인으로 꼽았는데, 이는 소그룹 리더는 관계 지향적 소그룹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룹원들의 정서적 필요에 반응하고,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그룹 분위기를 조성하고 유지 경험하는데 큰 비중과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았을 때 소그룹 리더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서적 지지 그룹의 필요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 내면적 자기 성찰과 대인 관계적 성찰, 그리고 정서적 공감과 반영, 긍정적 반응과 피드백 등 보다 친밀한 관계 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기술들을 체험할 수 있는 전문적인 소그룹 훈련 역시 너무나 중요한 점이다. 소그룹 리더들이 공감적 이해와 반영이 오고 가는 과정 속에 서로의 마음의 벽을 무너뜨리고 정서적 유대감을 공유하는 전문적인 정서적 지지 그룹 및 훈련을 통해서 관계지향적 소그룹의 힘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실제 그룹원들과 관계를 맺거나 관계 지향적 그룹 분위기를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많은 적용과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둘째, 관계 지향적 소그룹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목회자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촉구이다. 연구 결과 소그룹 참여자들은 그룹의 재편성과 통합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부적응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그룹 자체가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상호성과 친밀한 관계 경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소그룹을 오직

교회 성장의 도구로만 생각하는 목회자의 무분별한 적용은 오히려 해가 되거나 독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자는 질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기 위해 실제 소그룹 현장을 찾아가서 참여 관찰하고 교인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하는 경험을 그 자체가 교인들과 상호성(Mutuality)을 새롭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며, 목회자로서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교인들과 추상적이고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물고 있음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들이 되었음을 고백한다.

셋째, 생태 신학과 관계 문화 이론적 관점에 기반한 새로운 신학적 실천적 패러다임의 모색의 중요성이다. 연구 결과 소그룹 참여자들은 친밀한 관계 경험으로 인한 삶의 이야기 나눔을 통하여 신앙적 변화와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적인 신학의 영향으로 말씀 나눔과 삶의 나눔의 분리, 예배 시간과 나눔의 시간의 분리 등 스스로 말씀과 삶의 영역을 분리시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눔의 시간 갖는 것에 대해 신학적 중요성을 부여 받지 못하고 스스로 수다를 떠는 시간 등으로 그 의미를 격하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생태 신학자 Berry가 말한 것처럼, 과거의 전통에 너무 집착하여 생명이라는 더 큰 공동체로부터 스스로 고립 되어버린 전통적인 신학에서 우주론적 세계관으로 확장되는 생태적 세계관으로 그 범위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신학적 실천적 모색이 계속 되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다음으로 소그룹 안에서의 상호 관계성의 효과라는 연구 결과들을 살펴볼 때, 생명력이 활짝 꽃피운 소그룹의 개념과 그 모습들이 보다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첫째, 상호성(Mutuality)을 드러내는 지지와 격려, 수용적인 피드백의 증가이다. 참여자들은 형편과 처지를 잘 알고 있는 그룹원들로 인하여 이해 받고 지지 받고 있는 편안한 느낌을 경험하기도 했으며, 모임 안에서 많은 격려와 지지 반응과 피드백을 주고 받으며 또한 서로의 어려운 가정 문제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소그룹 안에서 친밀하고 깊은 신뢰 관계를 맺은 그룹원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차마 하기 힘들었던 삶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자신을 노출시키는데 있어서 편안함을 느꼈으며, 무조건적인 수용과 공감대 형성, 정서적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면 서로 간에 마음의 거리를 더 가깝게 느끼고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공감된 감정을 유머와 위트로 풍자화 시키며 웃음의 해학을 즐기기도 하였다.

둘째로, 그룹에 대한 소속감과 애착의 증대이다. 면접 내용을 분석한 결과 친밀한 상호 관계성의 효과는 여러 가지로 나타났는데, 즉 구역에 대한 소중함과 소속감을 느끼게 되고, 구역모임에 빠지는 것을 서운해하고 연락을 달라고 요청하는 등 구역 모임에 대한 그룹원들의 인식의 변화, 구역예배를 좋아하고 기다리게 됨, 서로 간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기 일처럼 전심으로 도와주고 사랑을 느낌, 서로 간에 안부를 묻고 걱정하고 궁금해하며 관심이 깊어지고 서로 간에 챙기게 되고 베푸는 정을 느낌, 보통 1시간 30분 이상 서로 삶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을 갖고 모임이 끝난 후에도 계속 교제를 가짐, 구역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방법을 서로 간에 상호적인 역할과 조율로 찾아 나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셋째로, 세대간의 활발한 소통과 교류이다. 참여자들은 이러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서로 간에 배우기도 하고 가르치는 경험을 하게 되었으며, 구역 모험임을 통해 듣고 깨달은 것을 삶에 적용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을 찾게 되었노라고 말한다. 특히 오늘날은 세대간의 소통과 공감을 통해 노인들의 정서적인 외로움을 줄여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과 지지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관계 지향적 교회 소그룹이 그 중요한 문제 해결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

넷째로, 깊은 공감으로 인한 영적 변화와 성장이다. 참여자들은 소그룹 안에서 그룹원들과 친밀한 상호 관계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깊고도 풍성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누게 되었고 삶의 고난과 역경을 신앙으로 극복해 온 이야기와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고백과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과 영적 성숙을 가져다 주었다고 말한다. 소그룹 안에서 서로 간에 친밀한 상호 경험을 하는 가운데 서로의 삶의 이야기와 간증들이 충분히 고백되고 나누어질 때, 더욱 생생한 말씀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의 신앙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이다.

다섯째로, 자기 성찰 및 통찰력 그리고 건강 회복, 성품의 변화 등이다. 소그룹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서로의 관계 경험을 통해서 반성적 사고와 성찰을 통해 자신을 새롭게 이해하고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그룹원들 상호간의 사랑과 관심으로 그룹원의 건강이 회복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통해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본인은 이러한 분석 자료 결과를 통해서 서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관계지향적인

교회 소그룹은 상호관계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표출되고 구체화되는 자리이고, 소외된 생명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하나님의 활동의 자리라는 본인의 논지의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소그룹의 본질은 상호 존중과 상호 공감이 바탕이 된 서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관계지향적 소그룹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그 자체로 생명력과 자생력을 지니고 있으며, 그룹원들의 상호 존중과 상호 공감이 바탕이 된 관계지향적 소그룹을 지향해 나갈 때 그 생명력이 활짝 꽃피우게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으로 한국 교회 공동체가 모색하고 지향해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성을 제공해 준다고 할 수 있다.

본인은 본 논문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점이 있다면, 모든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상호 의존 관계에 있고 아무리 미비한 존재일지라도 그 자체로 본질적 가치를 지닌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아야 한다는 "상호관계성"이라는 개념이 지니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제 자신과 다른 사람, 다른 대상을 바라봄에 있어서도 새로운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나 자신과 다른 사람, 자연과 더불어 더 나아가 온 우주와 하나님을 이해함에 있어서도 서로의 상호관계성을 생각하고 서로의 성장을 촉진시키는 관계지향적이라는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서로의 존재감을 교감할 수 있는 능력,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연결감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생태 영성의 회복의 기초이며, 한국 교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 역시 요즘 시대의 변화 속에서 세상과의 "상호 관계성"을 회복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보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는 바로 이러한 "관계(Relation, Connection)"에

시선을 돌려야 할 때라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와 신학은 지나친 개인 구원과 성공지향주의적 개 교회 중심주의로 인하여 스스로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를 단절, 분리시켜왔고, 그 결과 복음의 본질과 생명력으로부터 멀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 교회와 기독교를 향한 비판의 소리가 안팎으로 높아지고 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시선을 돌려 세상과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가치체계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척도를 선택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 안에서 얼마나 서로 간에 상생적인 관계들을 맺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고 받고 있는지, 과연 한국교회의 존재가 한국 사회 안에서 세상과 이웃과 친밀한 현존으로 상생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그 상생과 소통의 해법을 찾아나가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I : 연구 참여 동의서 (Appendix I: Informed Consent Form)

님께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Claremont 대학원 신학대학원 박사 과정을 하고 있는 문인혜 목사입니다. 저는 교회 소그룹이 얼마나 관계지향적이고 상호간에 만족할 만한 관계 경험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소그룹 진행과정에 대한 비디오 녹화 및 참여관찰 및 개인 인터뷰 방법론을 논문의 한 부분으로 포함하고자 합니다. 저의 주임 교수님은 클래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목회상담학과를 담당하시는 이경식 교수님입니다. 논문과 관련하여 교수님과 통화하기를 원하신다면 1(미국국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본 연구에 참여하실 경우, 참여하시는 소그룹 진행 과정에 대한 비디오 촬영 및 녹화, 본 연구자의 참여관찰 및 개별 인터뷰 등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그룹 참여 및 개별 인터뷰 녹화에서 이루어진 모든 대화 내용은 안전하게 보관될 것이며 논문에 사용 후 모두 영구 파기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그룹 과정 녹화 과정 및 개별 인터뷰에서 본인이 하신 말씀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누출되지 않을까 염려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귀하의 성함이나 연령 등을 변경하는 등 신원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귀하의 신원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본 연구는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므로, 녹화 및 인터뷰 도중 원하지 않으실 때는 얼마든지 중단하실 수 있으며 녹화 및 인터뷰 도중에 마음에 큰 부담이 될 때에는 즉시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연구가 참여하신 분께 직접적인 이득이 있다는 보장을 드릴 수 없지만 이번 연구를 통하여 소그룹의 관계 지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모델 및 자료를 제공해주심으로써 한국 교회 소그룹 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본 연구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저에게 얼마든지 자유롭게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연락처는 010-5062-8314이며, 이메일은 sorial72@gmail.com 입니다. 이 연구는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기관 윤리심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검토를 받아 왔으며 이 연구의 연구번호는 (2015-001)입니다.

위 박사 논문 프로젝트의 참여에 동의하시면, 서명된 이 문서의 복사본을 받으시고 아래에 서명을 해 주십시오. 끝으로, 연구자에게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만족할만한 응답을 받으셨는지 먼저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가자의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

날 짜 : ______________________

서 명 :

연구자의 이름 : ______________________

날 짜 : ______________________

서 명 : ______________________

Bibliography

▷ 이론적 근거에 관한 참고문헌

〈국내외단행본〉

강남순. *페미니스트 신학: 성, 생명, 영성.*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2002.

______. *페미니즘과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8.

______. *현대여성신학.*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구미정. *생태여성주의와 기독교윤리.* 서울: 한들출판사, 2005.

김미혜 and 서혜경. *노인복지실천.* 서울: 동인, 2002.

권진숙. *관계 문화 이론.* 서울: 신앙과 지성사, 2013.

변선환아키브·동서종교신학연구소, ed. *생태신학강의.* 서울: 크리스찬헤럴드, 2006.

유성준. *참된 교회를 이끄는 작은 공동체가 희망이다.* 서울: KMC, 2012.

크리스찬 아카데미 신학 연구위원회. *공동체의 신학의 모색.* 서울: 전망사, 1992.

Berry, Thomas. *The Dream of the Earth*. San Francisco: Sierra Club Books, 1988.

Brock, Rita Nakashima. *Journeyby Heart: A Chirstology of Erotic Power*. New York: Crossroad, 1996.

Cho, Hyun-Chul. *An Ecological Vision of the World: Toward a Christion Ecological Thology for Our age*. Roma: Gregorian University Press, 2004.

Odum, Eugene. *Fundamentals of Ecology.* Philadelphia: W.B. Saunders Co, 1971.

McDonagh, Sean. *To Care for the Earth: A Call to a New Theology.* Santa Fe,

NewMexico: Bear & Company, 1986.

Merchant, Carolyn. *Radical Ecology: The Search for a Livable World,* New York: Rouyledge, 1992.

〈번역본〉

Berry, Thomas. *The Dream of the Earth 지구의 꿈.* Translated by 맹영선.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3.

______. *The Great Work: Our Way into the Future 토마스베리의 위대한 과업.* Translated by 이영숙.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09.

Clarke, Thomas. *Befriending the Earth: A Theology of Reconciliation between Humans and the Earth 신생대를 넘어 생태대로.* Translated by 김준우. 서울: 에코조익, 2006.

Hoekendijk, J. C. *The Church Inside Out 흩어지는 교회.* Translated by 이계준.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Swimme, Brian and Thomas Berry. *The universe Story: from the Primordial Flaring forth to the Ecozoic 우주 이야기: 태초의 찬란한 불꽃으로부터 생태대까지.* Translated by 맹영선. 서울: 대화문화아카데미, 2010.

Reid, Clyde. *Groups Alive – Church Alive 소그룹이 살면 교회가 산다.* Translated by 전요섭. 서울: 쿰란출판사, 1996.

Pennington, Donald C. *The Social Psychology of Behaviour in Small Groups 소그룹 내*

행동의 사회심리학. Translated by 한지민 and 유승민.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5.

〈석·박사학위 논문〉

권오봉. "소그룹 사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Th. M. thesis, 성결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2011.

신정호. "교회교육에 대한 생태학적 문제제기와 대안 모색." Th. M. thesis, 감리교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0.

임영식. "시설노인과 재가노인의 우울과 스트레스 정도에 관한 연구." Ph.D. diss, 원광대학교 보건환경대학원, 2001.

홍창현. "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생태적 도시 공동체 운동." Th. M. thesis,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014.

〈정기간행물〉

강남순. "코즈모폴리터니즘의 담론과 실천(2): 코즈모폴리턴 유토피아의 갈망 – 스토아주의 코즈모폴리터니즘." *기독교교사상* vol. 664, no. 4 (2014): 258–70.

______. "코즈모폴리터니즘의 담론과 실천(4): 이 세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 코즈모폴리턴 정체성과 가치들," *기독교사상* vol. 666, no. 6 (2014): 258–74.

김영태. "전통적 교회의 현상적 도전과 문제점에 관한 연구." *개혁주의 교회성장* vol. 5, no. 5 (2010): 42–83.

맹영선. "토마스 베리의 우주론적 생태신학." *우리신학*, no. 1 (2002): 78–143.

송호석. "생태학적 여성신학." *神學展望*, no. 123 (1998): 99–131.

심종혁. “토마스 베리의 생태신학소고.” *신학과 철학*, no. 7 (2005): 1-20.

이정배. “생태학적 신학과 한국 신학의 과제.” *신학사상,* no. 100 (1998): 156-95.

_____. “창조에 대한 신학적 이해.” *기독교사상사*, no. 6 (1987): 14-27.

조성대. “현대 사회와 인간관계의 위기.”*한국인간관계학보* 5, no. 1 (2000): 111-31.

조현철. “생태신학의 이해 : 생태신학의 교의신학적 체계 구성을 위하여.” *신학과 철학*, no. 8 (2006): 1-26.

〈회의나 학술대회 발표논문〉

정현경, “에코페미니스트 신학의 한국적 정착을 위하여.” In *여성신학 학술 심포지엄 : 생태학적 여성 신학에 대한 한국적 평가.* Edited by 이화여성신학연구소. 서울, 1994.

▷방법론에 관한 참고문헌

〈국내단행본〉

김영천. *교과교육과 수업에서의 절적연구*. 서울: 문음사, 2001.

김윤옥, 박성미, 박소영, 손미, 신경숙, 이은화, 정명화, 허승희, and 황희숙*. 질적 연구 실천 방법*. 파주: 교육과학사, 2009.

신경림, 조명옥, and 양진향. *질적연구 방법론*.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8.

이원옥. *연구조사방법의 이해와 적용: 질적연구와 사례연구 방법*. 서울: 형설출판사, 2011.

〈번역본〉

Nigel, King and Chrisrine Horrocks. *Interview in Qualitative Research 질적 연구에서의*

*인터뷰.*Translated by김미영, 김윤주, 김려화, 박금주 and 지은주. 서울: 현문사, 2013.

Yin, Robert K. *Qualitive Rearch from Start to Finish* 질적연구 시작부터 완성까지, Translated by 박지연, 이숙향, 김남희 and 김미영. 서울 : 학지사, 2013.

〈정기간행물〉

홍용희, “참여관찰과 심층면담 :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의 관계.” *교육과학연구,* no. 28 (1998): 113-29.

이은아김, 이은수, 이혜진, 정유진, and 유미숙, “교사-학생 관계 증진 훈련에 참여한 초등학교 교사의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초등상담연구* vol 14, no. 3 (2015): 337-58.